



## 힘이 되겠습니다

귀여운 아들의 웃는 모습,  
승진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남편,  
다음 달 타게 될 5년 부은 적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 반 아이들.

때론 생각만 해도 웃음 지어지고  
힘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항상 교육가족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담: 1577-3993 및 시도지부

# The-K





# CONTENTS

2018 SEPTEMBER VOL.13



4  
여는 글  
열두 달의 밤이 지나면

6  
Essay  
“잠이 안 와 죽겠다고?”  
김용택 시인

8  
Inside Out  
<The-K 매거진> The First Anniversary

10  
Interview  
지금이 바로 내 생애 가장 젊은 날!  
정태섭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영상학과 교수

16  
Interview  
뮤지컬로 꿈꾸다, 세상을 바꾸다  
김준성 통영 용남초 교사 & 이선광 창원 명도초 교사  
고준보 서울 행현초 교사 & 안선영 서울 흥연초 교사

20  
창간 1주년 기념 스페셜  
아름다운 동행  
박찬일 셰프와 함께한 평양냉면 한 그릇  
송정희 중앙대 건강센터 부장 &  
민현아 한국외대 학생

28  
먼 나라 교육 편지  
달고 쓴 경험의 모여 Bittersweet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혜원 경기 예당고 교사

32  
행복 만들기  
주말마다 던진다, 친다 그리고 행복하다  
청주시 교직원 야구 동호회 ‘주말마다’

36  
창간 1주년 기념 스페셜  
<The-K 매거진>이 커피트럭과 함께 갑니다  
붕붕붕~ 사랑과 응원을 한가득 담은  
커피트럭이 도착했습니다!

44  
네오필리아  
나를 더욱 빛내줄 가을 패션 아이템

46  
브랜뉴 여행  
도시 문화 산책 ❶  
런던의 시작, 공원의 탄생

52  
트렌드 Go Go  
우리 도시를 죽이지 말라!  
여행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 투어리즘 포비아

54  
아는 공간  
미술관 옆 작은 책방  
봄날의책방

58  
The-K Focus  
그림은 붉고 인생은 푸르다 2030 청춘공감  
한국화가 김현정 작가와 함께한 달빛 그림 여행

62  
The-K Family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  
The-K소피아가린

66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9  
창간 1주년 기념 이벤트  
함께 나누면 더 좋은 The-K 매거진을 보내드립니다!

70  
독자 이벤트  
9월 즉석당첨 이벤트

71  
편집실에서 띄우는 편지  
다시 열두 달의 밤을 위하여

# The-K

VOL.13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9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정라희 엄용선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이은정 uncheang@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황원 안호성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b>한국교직원공제회</b>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 열두 달의 밤이 지나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당신의 이름을 처음 불렀습니다.

선선한 가을의 바람이 시작되던 날  
우리는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몇 밤을 함께 보냈는지 손가락으로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저 당신만을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낙엽이 지고,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계절을 느꼈을 뿐입니다.  
춘삼월에 피는 꽃에, 꽃이 흐드러지게 활날릴 때도,  
뜨거운 여름날을 온몸으로 느낄 때도  
그저 함께하는 것이 좋아 당신만을 바라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열두 달의 밤이 지났을 겁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밥을 먹으며  
같은 생각을 하며  
우리가 닳아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닳아간다는 것은 함께했던 시간이 주는 선물일 겁니다.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또 한 번의 열두 달의 밤을 함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이 우리로 인해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할 앞으로의 열두 달의 밤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 다시 시작점에 선 당신에게 “잠이 안 와 죽겠다고?”

글 김용택 (시인)

나는 일찍 잔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시 30분 안에 잔다. 재미있는 연속극을 방영하면 10시를 넘길 때도 더러 있지만, 아무리 재미있는 연속극도 내 잠을 11시까지 잡아두지 못한다. 일찍 자니까 일찍 잠이 깬다. 대개 2시에서 3시 사이에 깬다. 잠이 깨면 잠깐 누워 있다. 더 잘까 그냥 일어날까 망설이다가 눈이 보드라워지면 일어난다. 요즘 잠이 깨면 귀뚜라미와 지렁이 울음소리 들으며 가만히 누워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책이 있는 방으로 간다.

내 책 방은 마당을 지나야 한다. 겨울에는 눈이 와 있을 때도 있고, 여름에는 비가 올 때도 있다. 요즘은 풀벌레 울음소리들 곁을 지나야 한다. 지렁이 울음소리가 어찌나 영롱하던지, 마치 맑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세상에, 별들이 그렇게 초롱거릴 수가 없다. 지상의 지렁이 울음소리와 새벽하늘의 별빛은 다른 듯 닮아 있다. 책이 있는 방으로 오면, 우선 불을 켜고, 창문들을 열어젖힌다. 오늘은 맹꽂이가 책 방 앞 작은 연못에서 운다. 컴퓨터를 켜다. '다음'으로 들어가 스포츠 명장면을 검색한다. 나는 오랫동안 축구 명장면을 보아왔다. 요즘은 킥복싱 장면을 볼 때도 있다. 새벽부터 두들겨 패는 싸움을 보면 어쩐지 기분이 그래서 잘 보지 않는다. 축구 명장면을 찾아 보고 나서 영화 리뷰를 찾아 본다. 무슨 영화에 관객이 몇 명이나 들었는지, 무슨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지, 무슨 영화가 곧 개봉하는지, 무슨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 영화 소식은 끝이 없다. 만들 어지고, 곧 상영될 영화 리뷰만 보아도 이 영화가 잘될지 안될지 대략 짐작이 간다.

영화는 내게 오래된 공부다. 영화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오늘의 현실로 가져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똑똑하게 보여준다. 영화는 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보여준다. 영화는 늘 현실이다. 나는 마블 영화도 아주 좋아해서 늘 챙겨 본다. 영화 리뷰를 다 보고 나서 나는 '네이버'로 건너간다. 신문을 보기 시작한다.

김용택 시인  
하루도 빠짐없이 섬진강 주변을 부지런히 오고 간다. 강변을 따라 거닐면 자연이 동무가 된다.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쓰면 곧 시가 된다. 나무만큼 시를 잘 쓰는 사람도 없다. 작은 것에 아름다움을, 사소한 것에 사랑을 받는다.

우선 내가 사는 도에서 나오는 신문 하나를 검색해서 본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어날지를 보는 것이다. 문화면에 들어가 문화 소식도 챙긴다. 그리고는 중앙지들을 검색한다. 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와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을 검색한다. 헤드라인을 먼저 보고, 구체적으로 검색한다. 신문은 정치 면을 먼저 본다. 정치 면은 다 재미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에서 나는 한 신문을 자세히 검색한다. 유일하게 그 신문은 종이 신문으로도 본다. 가장 읽을거리가 많다. 그 신문은 승효상의 건축 칼럼을 연재한다. 내가 보는 모든 신문의 오피니언을 클릭한다. 사실과 칼럼을 읽는다. 사실을 반드시 검색해서 제목이라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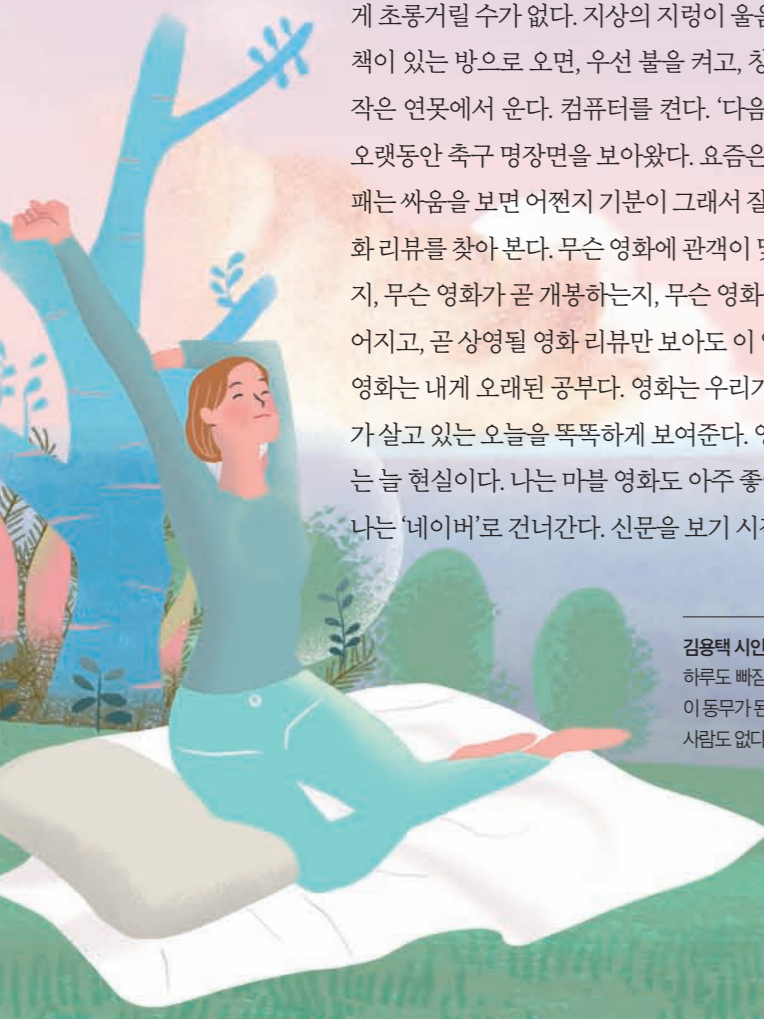
신문은 오랫동안 나를 공부시켰다. 나라 안과 밖의 복잡한 문제를 늘 정리해주었다. 나는 절대 편파적으로 세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세상을 명백하게 보려 한다.

신문을 다 보고 나면 시간이 꽤 오래 가 있다. 이때쯤이면, 매미도 울고 새들도 운다. 요즘은 호반새가 호로롱 호로롱 운다. 지렁이 울음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녹음할 때도 있다. 그렇게 신문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아침 시'를 찾아 읽는다. 좋은 시가 있으면, 딸에게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메일로 보낸다. 아주 좋은 시는 아내에게도 보여준다.

그렇게 시까지 읽고 나서 일기를 쓴다. 어제 일기를 오늘 아침에 쓰는 것이다. 일기는 재미 있다. 마을은 단순한 것 같아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나는 있었던 일을 쓴다. 오늘 아침은 어제 만조 형님께 눈에 농약 한 이야기도 썼다. 요즘 기온이 너무 높아 눈에 병충해가 많지 않단다. 날이 너무 뜨거워 논이 해충들이 부화를 못 한단다. 폭염이 눈에 좋은 일을 하기도 한다. 아무튼 마을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쓴다. 생각해보면, 마을도 고을도 나라도 정말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들에 대한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는 내 시를 꺼내 본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는 써놓은 내 시를 본다. 내 시에 대해 나는 세 개의 '시의 방'을 가지고 있다. 완성된 시의 방, 조금 덜 된 시의 방, 아주 버리고 싶은 시를 모아놓은 방, 나는 이 세 개의 방을 돌아다닌다. 시의 방을 다 돌아다니다가 시들해지면 책 방을 나온다.

늘 그렇지만 그때쯤에는 앞집에 사는 형님이 텃밭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밖으로 나가 집 안을 한번 둘러보고 카메라를 들고 강물을 따라 산책을 나간다. 강과 산과 마을의 사진을 찍으며 한 40분쯤 강물을 따라 걸다가, 다시 강물을 거슬러 집으로 돌아오면 햇살이 마을 앞 느티나무를 비추고 있다. 햇살이 산을 넘어 느티나무를 비추면 나는 느티나무 사진을 찍는다. 거의 매일 1년 내내 느티나무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는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는 강연을 나간다.

나는 잠이 안 와 죽겠다고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 “죽거나 일어나라.” 왜 자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꼭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없었다. 무엇인가를 하다가 보니 무엇이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외면하고 산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잠이 안 와 죽겠다고는 말밖에 할 말이 없게 된다. 너는 시인이니까 그렇다고? 누가 당신이 시인 되는 것을 가로막기라도 했던 말인가.





# <The-K 매거진> The First Anniversary

어느덧 <The-K 매거진>이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껏 아끼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The-K 매거진>과 함께한 1년, 매거진을 보고 느낀 생각은 무엇일까요? 공제회원과 함께한 1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간 2018년 8월 1일 ~ 5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3605명

성별	남성	33.7%	
	여성	66.3%	
	연령	20대	11.6%
		30대	33.0%
		40대	30.8%
50대		18.8%	
60대 이상		5.8%	
직업	교원	56.2%	
	비교원	43.8%	
	유치원	3.2%	
	초등학교	26.0%	
	중학교	12.8%	
근무하는 직장	고등학교	15.5%	
	대학교(병원)	32.1%	
	교육연수/행정/연구기관	7.8%	
	기타	2.6%	



(단위: %)

(단위: %)

## Q. <The-K 매거진>의 콘텐츠 중 가장 선호하는 부문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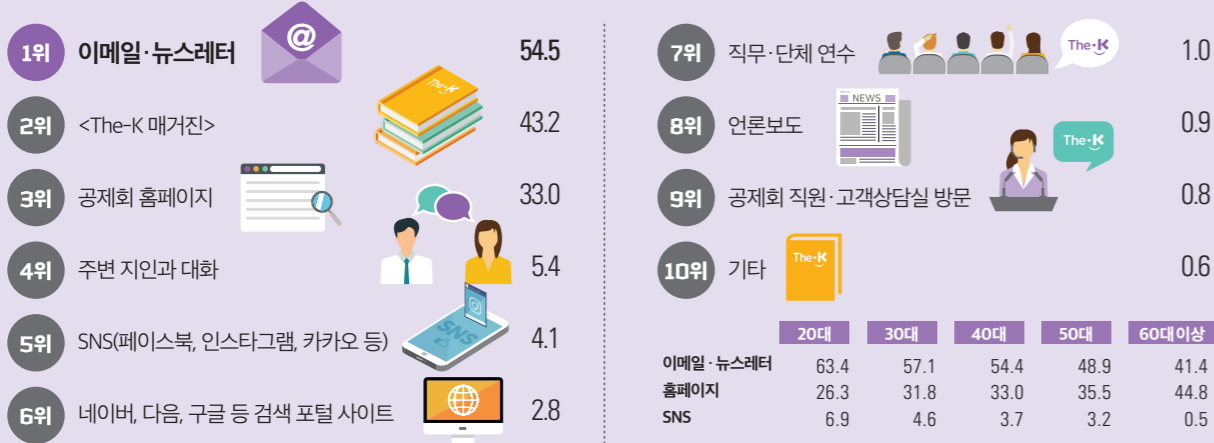


기타  
행복만들기 9.7 / 인터뷰 7.5 / 먼 나라 교육 편지 5.7 / 인사이드아웃(설문 조사) 5.4 / 트렌드 Go Go 5.3 / 아는 공간 1.4 / 네오필리아 0.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즉석 당첨·경품 이벤트	66.6	58.3	46.5	31.3	26.4
브랜드 여행	16.7	22.1	30.6	38.8	41.6
아름다운 동행	14.8	19.5	30.1	41.5	47.2



## Q. 공제회 관련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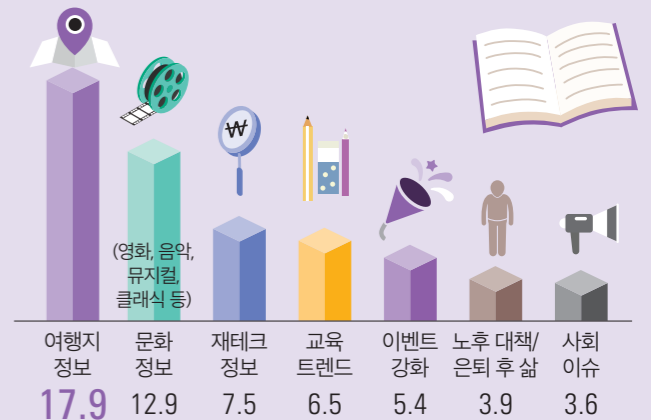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메일·뉴스레터	63.4	57.1	54.4	48.9	41.4
홈페이지	26.3	31.8	33.0	35.5	44.8
SNS	6.9	4.6	3.7	3.2	0.5

## Q. <The-K 매거진>을 통해 만나고 싶은 인물(인터뷰 또는 독자와의 만남 등)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주관식)



## Q. <The-K 매거진>에서 새롭게 다루거나 더 비중 있게 다뤘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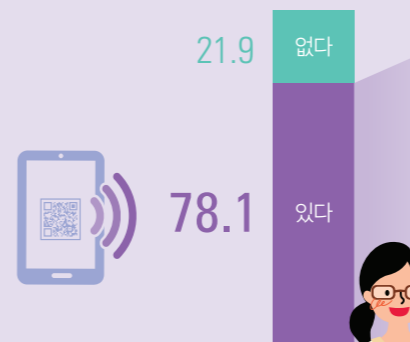
## Q. <The-K 매거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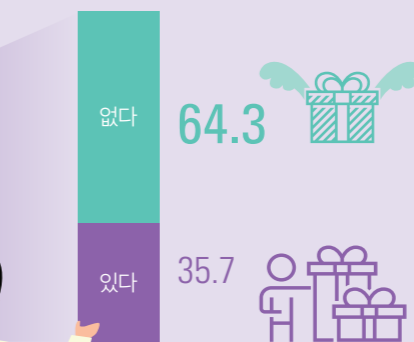
## Q. 주로 어떤 경로로 <The-K 매거진>을 이용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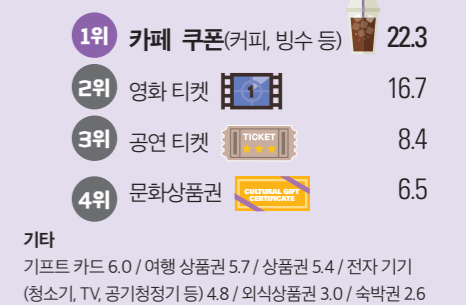
## Q. <The-K 매거진> 즉석 당첨·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까?



## Q. <The-K 매거진> 즉석 당첨·경품 이벤트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 Q. <The-K 매거진> 즉석 당첨·경품 이벤트로 받고 싶은 경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관식)







Chung

# 지금이 바로 내 생애 가장 젊은 날!

**정태섭**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영상의학과 교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삶이기에 후회 없이 살고 싶다. 그러나  
바람은 항상 머릿속을 맴돌 뿐 매일  
잠자리에 들며 돌아보는 하루는 후회의  
연속이다. 새 출발을 다짐해보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 것만 같다.  
만약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정태섭 교수의 이야기를 주목해보자.  
글 정리희 사진 한상무



Tae Sup



### 시작이 반이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사람들은 종종, 아니 자주 망설인다. 지금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고민스러운 까닭이다. 이런 고민에 빠진 이들에게 정태섭 교수의 도전은 훌륭한 사례다. 그는 남들이 은퇴를 고민할 시기인 신셋에 엑스레이 아트를 시작했다. 엑스레이 아티스트로 작품 활동을 한 지 어느덧 11년. 그사이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엑스레이 아티스트가 됐다. 그의 작품은 초·중·고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프랑스와 러시아, 미국 등 국제 아트 페어에 초청된 것은 물론 소버린 예술 재단이 선정한 '2013년 아시아 아트 프라이즈 3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히트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작품 4점이 등장해 대중적 인지도도 얻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민하게 살피며 하고 싶은 일에 적극 도전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나이가 드니까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얼굴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에 신경 쓰기보다 내 마음이 시키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어요. 처음 전시회를 준비할 때도 갤러리 열두 곳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만약 체면 때문에 포기했다면 오늘의 성과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메모지를 꺼내 들고 갤러리 관계자에게 어떤 점이 부족한지 비평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얻은 조언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참고서였어요. 덕분에 열세 번째 찾아간 갤러리에서 전시 허락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접하기 어려운 엑스레이 아트에 열광했고, 각종 매스컴에서도 그의 작품을 집중 보도했다. 나이 혹은 체면 때문에 주저했다면 오지 않았을 기회. 그렇기에 그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그는 “오늘은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말한다. 고민하는 중에도 시간은 간다. 76세에 처음 붓을 잡고 101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00여 점의 그림을 세상에 남긴 메리 로버트슨 모리스, 65세에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치킨 체인을 만든 커넬 할랜드 샌더스 등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엑스레이 아트

정태섭 교수가 말하는 엑스레이 아트의 매력은 외형이 아닌 내면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길을 가다 멋진 건축물을 보면 그 내부도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장미는 외형도 예쁘지만 내부 구조 역시 아름답다고 한다. 그의 첫 작품이자 대표작인 '입속의 검은 잎' 역시 엑스레이 아트였기에 가능한 시도다. 2006년, TV를 보다가 기형도 시인의 시 '입속의 검은 잎'을 접한 후 이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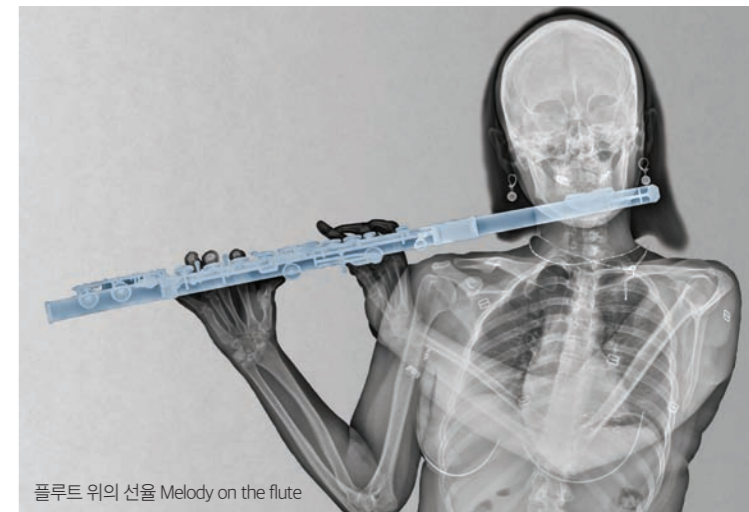
“직접 장미꽃 브로치를 입에 물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치아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후배 의사에게 부탁해 다시 촬영한 뒤 작품을 완성했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엑스레이 사진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촬영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크기가 큰 사물은 여러 차례 정교하게 나누어 찍어야 할뿐더러 이를 바탕으로 후반 작업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사람의 전신 촬영은 특히 까다롭다.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하고, 사람 몸의 굴곡을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과정도 만만찮다. 여기에 더해 색을 입히는 컴퓨터 그래픽 작업도 해야 한다. 24시간이 부족한 대형 병원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퇴근 후 작업실로 직행하는 이유는 '즐거기 때문'이다.

독특한 표현 방식에 매료되어 엑스레이 아트에 뛰어드는 이가 많을 듯하지만, 엑스레이 기기를 다루는 일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만큼 세계적으로도 엑스레이 아트를 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그를 포함해 3명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 중. 지난해 5월, 정태섭 교수는 네덜란드 엑스레이 아티스트 아리 반트리에트와 공동 전시를 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에는 엑스레이 아트의 세계적 거장 닉 베세이를 만났다. 이 모든 게 11년 전, 엑스레이 아트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 포수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인생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 과정을 소중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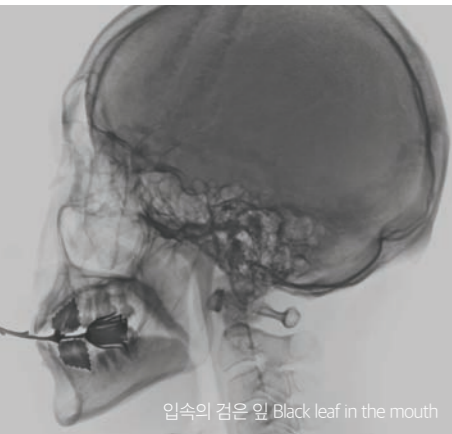
정태섭 교수에게 인생이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으며 사는 것”이다. 덕분에 그는 60여 년을 살아오며 누구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린 시절 부친의 남다른 교육이 있다. 미술 교사였던 부친은 그



“**많은 사람이 언제 일하고 스무 가지 취미까지 다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일단 시작해서 초창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면 이후에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연날리기가 그렇잖아요. 처음 연을 날리면 맞바람에 흔들리지만, 막상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바람을 타고 더 잘 날죠.**”







입속의 검은 잎 Black leaf in the mouth



마음의 창 Window of mind



시절에 보기 드물게 임기보다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빈치식 교육을 한 주역이다.

“덕분에 어려서부터 엉뚱한 일을 종종 벌였어요. 손으로 앰프를 만들고 기계 회로를 만지고 다니니 ‘저 친구 좀 특이하다’라며 눈총을 받기도 했죠. 덕분에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됐어요.”

사소하고 꾸준한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환갑이 넘은 그의 취미는 무려 스무 가지가 넘는다. 세계 화폐 수집과 별자리 관측, 소라껍데기 스피커 제작, 음향기기 만들기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정도다. 두 개의 특허와 한 개의 실용신안도 등록했다. 이런 취미가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묻는 이도 있지만 그의 답은 오직 하나 ‘즐거움’이다.

“즐길 거리가 늘어나면 사는 게 더 재미있어져요. 각각의 취미가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과학자의 얼굴이 들어간 화폐를 수집해온 그는 2004년에 ‘지폐에 우리 과학자 얼굴 올리기 운동’을 결성하고, 우리나라 대표 과학자 중 한 사람인 장영실의 초상화를 5만원권 화폐에 올리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비록 결과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나라 과학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었다. 늦은 밤, 연구를 하다 기분 전환을 하고자 홀로 별을 보던 그의 모습을 보고 내려온 병동 아이들을 위해 13년간 정식으로 별 관측 행사도 열었다. 이런 경험 덕분에 그는 의사로서는 특이하게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인 <아하! 그렇구나>의 MC로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혹자는 ‘본업은 체쳐놓고 만짓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2011

년 EBS <명의>에 소개된 이력이 있을 만큼 영상의학 분야에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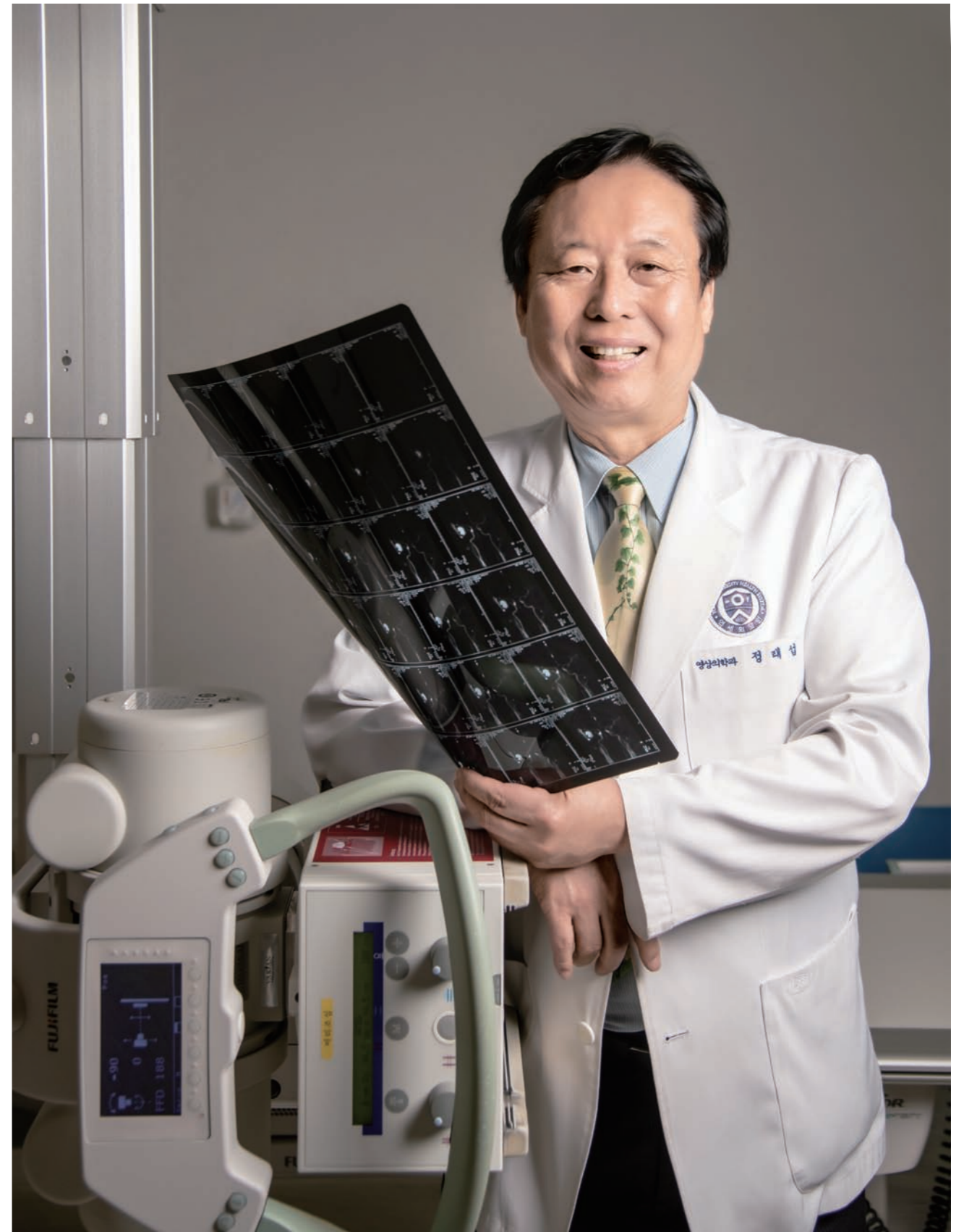
“많은 사람이 언제 일하고 스무 가지 취미까지 다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일단 시작해서 초창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면 이후에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연날리기가 그렇잖아요. 처음 연을 날리면 맞바람에 흔들리지만, 막상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바람을 타고 더 잘 날죠.”

####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달콤한 인생

다가오는 2019년은 그가 30년 이상 몸담아온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해다. 다른 이들은 ‘정년퇴직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고민이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선 터전을 만들어야 해요. 저는 그 실마리가 취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자기를 키울 수 있는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진로 상담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도 ‘잠재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신도 선셋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지 않았던가. 올해 초에는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제목으로 책도 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재미있게 나이 드는 그만의 인생 노하우를 담았다. 여전히 그는 새로운 엉뚱한 일을 벌인다.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고 미리 밝힐 수는 없지만, 동영상 편집을 독학하며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몰두 중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사는 게 즐겁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







# 뮤지컬로 꿈꾸다 세상을 바꾸다

김준성 통영 용남초 교사 & 이선광 창원 명도초 교사  
고준보 서울 행현초 교사 & 안선영 서울 흥연초 교사



고준보 교사

안선영 교사

김준성 교사

이선광 교사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뮤지컬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통영에서 열린 '2018 제1회 전국교육뮤지컬페스티벌'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그렇다고 입을 모아 대답했다. 한여름 폭염까지 녹여버린 그들의 열정에 절로 감탄이 몰아친 하루. 노래와 춤, 연기가 함께한 시간을 들여다보자.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 교육 뮤지컬을 시작하다

지난 7월 28일, 통영시에 자리한 충렬초는 방학임에도 무척 분주해 보였다. 한쪽에서는 새 학기 준비를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2018 제1회 전국교육뮤지컬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렬초는 건물 한 동 2층 전체를 뮤지컬실로 쓰고 있는, 꿈틀꿈틀통영청소년뮤지컬단의 산실이다. 2층 복도에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노랫소리와 웃음소리, 긴 대사를 읊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안에서 뮤지컬 연습이 한창임을 알 수 있었다.

취재팀을 반갑게 맞이한 건 경남 통영시 용남초 김준성 교사.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과 관련 인프라가 대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작은 도시 통영을 교육 뮤지컬의 메카로 이끌고 있는 그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심 인물이다.

“제가 처음 뮤지컬을 접한 건 2013년, 충렬초에 근무할 당시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생뮤지컬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뮤지컬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이들과 공감하고 다양한 교과를 융합하기에 매우 좋은 재료라고 느꼈으니까요.”

뮤지컬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했지만 사실 막막했다. 연출, 무대, 대본, 연기, 춤, 노래까지 모든 분야가 생경했던 것. 서울에서 뮤지컬 전문가와 부산에 있는 교수님을 초청해 교수 연수를 하기도 했다. 통영에서 주로 활동하는 벼수골극단에서 연기를 배우고 무대에 오른 것도 오로지 ‘뮤지컬’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비롯되었다.

“고민 끝에 부산교육대 공연예술교육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노래도 잘해야 하니까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성악가에게 레슨을 받기도 했지요. 배움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뮤지컬의 매력인 것 같았습니다.”

꿈틀꿈틀통영청소년뮤지컬단을 조직한 것도 그즈음이다. 충렬초가 주축이 되어 통영의 지역 인사, 교원, 예술가를 모아 초·중·고 연합 뮤지컬단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온 것. 통영시 교육 전문가가 모여 탄생시킨 꿈틀꿈틀통영청소년뮤지컬단은 해마다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면서 현재도 왕성히 활동 중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도시로 알려진 통영의 이력과 더불어 잘 어울린다.

### 전국의 뮤지컬 선생님, 한자리에 모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전국교육뮤지컬페스티벌은 각 지역에서 뮤지컬과 교육을 융합한 교육법을 시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처음 모인 축제의 현장이다. 첫 회임에도 서울교육뮤지컬연구회, 강원문화예술교육연구회, 대전교원예술동아리 다온, 경남뮤지컬연구회(김해), 경남교육뮤지컬연구회 메아리 등 전국 각지에서 4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준성 교사는 이 행사를 두고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한 가장 큰 목적은 모이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1회 모임은 전국 각지에서 교육 뮤지컬을 하는 사람이 한데 모여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





“  
 뮤지컬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아이들 또한  
 꾸준히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예술 교육  
 생태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교육 뮤지컬을  
 공부하고 현장에 전파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으로도 큰 수확이에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행위인지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겠죠”라는 말로 이번 축제의 목적을 설명했다.

경남교육뮤지컬연구회를 통해 참석한 이선광 교사(명도초)는 올해 처음 뮤지컬을 접했다. 창원에서 인디밴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평소 자신의 음악 지식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접목할지 고민하던 차, 대학 동기인 김준성 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 뮤지컬에 참여하게 되었다.

“밴드와 뮤지컬은 같은 음악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뮤지컬은 종합 예술로, 제진 비빔밥 같은 느낌이에요. 노래, 춤, 무대미술, 연기, 연출까지 교과로 치면 체육, 음악, 미술, 국어 등이 모두 녹아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뮤지컬 한 편을 제대로 공부하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한꺼번에 익힐 수 있고, 무엇보다 재미있어서 더욱 몰입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교육 뮤지컬의 매력입니다.”

이선광 교사는 아이들에게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갈 방법을 찾은 것은 물론 교직 생활의 활력소를 찾았다며 환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서울교육뮤지컬연구회 고준보 교사(행현초) 역시 뮤지컬을 통해 자신의 재주를 교육과 연계하는 방법을 찾았다.

“대학생 때 밴드에서 기타를 친 경험이 교육 뮤지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뮤지컬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데 이들은 물론이고 저 역시 작업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매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죠. 흔히 교육 하면 아이들의 변화를 먼저 떠올리는데, 교육자의 변화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고준보 교사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들을 만든다는 이야기에 동감한다면서 자신이 행복해지면 그 기운이 아이들에게도 전파되는 것 같으며 교육 뮤지컬을 열렬히 지지했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석해 가장 놀란 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사가 뮤지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생님들의 열정과 실력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잠시 뒤에 있을 갈라 공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하하.”

**아이와 교사, 교육 현장의 변화**

사실, 오전에 취재팀이 들이닥쳤을 때 웃음소리와 노랫소리, 대사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크게 울린 건 오후에 펼쳐질 갈라 공연 때문이었다. 모든 교사가 함께 연기하고 춤추고 동선을 짜고 편집한 음악을 적절히 내보내는 등 말 그대로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드디어 4개 팀이 공연



순서를 뚫고 차례대로 각자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 소재는 매우 다채로웠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워트와 유머에 적절히 녹여낸 뮤지컬, 왕따당하는 아이가 주인공인 뮤지컬, 뮤지컬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애환과 아이들의 충동을 그린 뮤지컬 등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충분히 일어남직한 일을 날카롭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그려낸 것. 재치 있게 개사한 노래, 신명 나는 춤, 프로 못지않은 연기와 매끄러운 연출, 적재적소에 배치된 조명과 음악이 관람하는 교사들에게 크나큰 박수와 환호를 자아냈다.

왕따당하는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로 출연한 서울교육뮤지컬연구회 안선영 교사(홍연초)는 특히 발군의 춤과 노래, 연기를 선보여 관객을 놀라게 했는데, 알고 보니 대학 시절부터 뮤지컬과 연극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접목한다면 저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마다 성장 속도가 다른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협력’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는 얼마 전 끝낸 영어 뮤지컬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기도 했다.

“4~6학년 아이들을 모았는데 각자 영어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읽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든 영어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고 싶어 하면서 mp3

파일도 반복해 듣고 발음을 적어가며 기어코 영어 대사를 외워 오더라고요. 교실 공연이니만큼 규모가 정말 작았지만 커튼콜을 하자 출연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요. 아이들도 스스로 뿌듯해했고요. 제게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교육 뮤지컬의 선봉에 선 교사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 뮤지컬이라는 공동 작업을 통해 아이들에게서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협동심과 인내심 속에서 학과 교육은 물론 인성 교육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교사로서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뮤지컬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아이들 또한 꾸준히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예술 교육 생태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교육 뮤지컬을 공부하고 현장에 전파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피동이 아닌 능동으로, 명사가 아닌 동사로 꿈을 꾸며 달려가는 교사들. 자신이 가진 재능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교육 현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이 있기에 아이들의 내일은 조금 더 재미있고 행복하지 않을까? 전국의 교육 뮤지컬 담당 선생님들, 뜨겁게 소리 높여 응원합니다!





#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이는 만큼 맛있다

## - 박찬일 셰프와 함께한 평양냉면 한 그릇

바야흐로 먹방의 시대. 공중파와 종편은 물론 유튜브에서도 먹고 마시고 음미하며 감탄하는 영상이 연달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음식은 대개 미각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와 시대를 품고 있다. 송정희 간호사가 음식을 사랑하는 딸 민현아 씨와 함께 박찬일 셰프를 만나러 오는 길도 그러했을 것이다. 숨은 이야기를 들으며 평양냉면을 즐기러 왔으니까.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송정희 중앙대 건강센터 부장  
&  
민현아 한국외대 학생



### 박찬일 셰프와의 맛있는 만남

여전히 세프테이너 시대다. 수많은 스타 셰프가 방송에 출연해 친근함으로 대중에 어필한다. 이와 달리 방송 출연보다 혹독한 글쓰기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박찬일 셰프의 이야기다.

송정희 간호사와 딸 민현아 씨는 그런 그를 만나러 단숨에 달려왔다. 맛있는 음식과 그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내놓은 주인공을 만난다는 순수한 기쁨으로. 이들이 만난 곳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자리한 ‘몽로’다. 박찬일 셰프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 ‘로칸다몽로’에 이어 문을 연 식당으로 ‘무국적술집’이라는 부제에 걸맞은 다양한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다. 이곳은 인근 직장인은 물론 일부러 찾아오는 미식가까지 365일 내내 북적인다. 오늘 만남을 앞두고 박찬일 셰프에 대해 예습을 해온 송정희 간호사와 민현아 씨의 궁금증으로 대화의 포문이 열렸다.

“제가 요리를 한지는 20년 됐습니다. 제 또래라면 보통 27년 차 정도 되는데 저는 늦게 시작해서 경력이 짧아요. 처음에 잡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글의 소재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약속을 하고도 문밖에서 1시간을 서 있을 정도로 부담이 컸으니까요.”

우리 사회가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크지만 7000 원짜리 백반에는 그보다 더한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생각에 박찬일 셰프는 요리로 직업을 전환했다. 폐쇄적인 공간인 주방에서 일하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컸다.

“앗,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박찬일 셰프가 이야기하는 도중 민현아 씨가 입을 열었다.



**요리와 대화, 그 끝없는 성찬**

민현아 씨는 어린 적부터 음식에 관심이 지대했다. 요리를 해보고 싶다며 엄마를 조른 시기는 겨우 초등학교 4학년 때. 요리는커녕 부모님께 갈 잡는 것조차 허락받기 어려운 나이였지만 송정희 간호사는 딸의 바람을 말리지 않았다. 뭔가 해보고 싶어 하면 늘 북돋아주고 지원해준 엄마는 요리학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초등학교도 수강이 가능한지 물었고, 결국 민현아 씨는 당시 기록으로 산업인력공단 최연소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어릴 때는 먹는 게 좋아서 요리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셰프님은 사람과의 만남이 불편해서 요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 반대로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 관심 분야

를 스포츠로 바꿨어요. 어린 시절에 시작해서인지 요리는 주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요즘은 오픈 주방에서 일하고 더 많은 사람과 만나며 연락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는 박찬일 셰프의 항변(?)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에 “난 양식 조리사 시험에 떨어진,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요리사”라는 고백까지 이어지니 좌중의 폭소가 이어졌다.

수다로 목이 말라갈 무렵, 커피와 디저트가 나왔다. 민현아 씨는 차가운 커스터드 크림 위에 캐러멜 토핑을 얹어 툭툭 깨 먹는 크림 브뤼레와 이탈리아 정통 티라미수에 탄성을 질렀다. 송정희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특별한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니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한식집을 연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나 경제 등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미래는 한식에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그중 평양냉면과 국밥은 제가 평소에도 무척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평양냉면은 많이 공부하고 먹어보면서 터득한 레시피에 제 상상력을 더해 만들었죠.”

**서울에서 만난 평양냉면, 그 특별함**

손가락으로 국물을 뜨고 젓가락으로 면을 치켜드는 순간부터 미각 여행이 시작된다. 오늘 만남의 목적, 평양냉면이 드디어 식탁에 차려졌다. 사기 그릇에 곱게 담아 내는 평양냉면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스테인리스 면기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는 식당의 찬이 아닌, 어머니가 소반에 차려 내는 집밥 같은 느낌이었다.



평생을 워킹맘으로 살아온 송정희 간호사가 “요리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였지만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만큼은 꼭 차렸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레시피를 다양하게 응용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는 활용했다” 등 이런저런 고충을 말하자 박찬일 셰프는 맛있는 집밥 차리기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사소하거나 진지한 이야기가 즐겁게 이어졌다. 셰프를 남편으로 둔 아내의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식재료를 종종 안겨다 주고 순서대로 빨리 소진할 것을 주문받는 셰프의 아내라니! 안타까움에 모두가 비명 섞인 한탄을 내뿜으니 그 끝은 또 웃음바다가 되었다. 짹짹 비운 디저트 접시와 커피 잔을 뒤로하고 슬슬 ‘광화문국밥’ 집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지난해 3월 박찬일 셰프가 오픈한 이곳은 평양냉면과 돼지고국밥이 주메뉴. 오픈하자마자 점심시간 전부터 넥타이부대가 줄을 서고, 낮 12시면 이미 만석을 기록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박찬일 셰프는 셰프복으로 환복한 뒤 두 모녀를 위해 직접 냉면 가락을 뽑으며 말을 이었다.







“스테인리스 그릇이 일반화된 건 1960년대부터예요. 그전에는 그저 사기그릇에 담아 먹지 않았을까요?”라는 박 셰프의 말에 송정희 간호사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북측이 제면기까지 들고 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냉면을 대접했다는 소식에 평양냉면 열풍이 뜨겁게 일었지만, 박찬일 셰프는 진작부터 냉면을 각별히 사랑해온 냉면 전문가이다.

“어머니가 냉면을 참 좋아하셨어요. 어린 시절 저는 장 보러 나가는 어머니를 따라 남대문시장을 열심히 다녔는데, 냉면을 얻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 입맛에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면 요리를 좋아하셔서인지 저도 어머니의 입맛을 따라간 셈이에요.”

셰프가 된 이후에도 냉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전국의 냉면집을 찾아다니고, 일본과 중국의 냉면집까지 뒤져가며 그 맛과 정통성을 찾고자 애쓴 그의 이력에는 유년 시절 맛본 냉면, 그리고 어머니의 맛에 대한 기억이 아주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박찬일 셰프의 평양냉면은 여느 집과 다르다. 소고기 살코기와 채소를 끓여 맛이 깔끔한 육수를 쓰고, 메밀면은 면장을 고용하는 대신 그가 이리저리 배합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비율로 직접

“오랜 시간 취재를 해서 펴낸 <노포의 장사법>은 시대와 세월이 담긴, 사회사 안에서 바라보는 책임입니다. 대를 이어 이어온 ‘노포’가 그러하듯 학생들이 먹는 급식도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예요. 선생님들께서 급식을 통해 미각 교육, 관련 노동자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나라의 지속적인 관심과 급식의 질 개선,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변화가 순차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뽑아 사용한다. 적당한 두께로 먹음직스럽게 돌돌 만 면 위에는 반으로 가른 삶은 달걀이 아니라 곱게 채 썬 달걀지단을 고명으로 올린다.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내는 백김치와 함께 먹으면 시원함이 그야말로 일품인 평양냉면의 맛이 완성된다.

평양냉면을 즐겨 먹는다는 송정희 간호사는 “장안에서 소문난 유명한 평양냉면집을 많이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다녀왔지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은 이곳이 최고!”라며 바쁘게 젓가락질을 했다. 그에 비해 민현아씨는 돼지국밥에 무한 사랑을 쏟았다. 평양냉면 맛을 알기에는 아직 젊어서일까. 그에 비해 돼지국밥은 국물부터 고기, 밥을 말아 먹는 마지막 순가락까지 입에 착착 감긴다고 감탄했다.

“사실 돼지국밥은 오늘 처음 먹어봐요. 상상하기에는 뭔가 기름지고 뽀얀 국물에 돼지고기가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국물이 정말 개운하고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맛있어요.”

덕적도에서 배송해 오는 것갈을 흑돼지와 얼룩돼지고기가 푸짐한 돼지국밥 위에 척척 얹어 먹더니 그릇째 들어 국물까지 다 마신 민현아씨가 여전히 입맛을 다셨다. 8kg짜리 축축한 삼겹살과 기름기 없는 담백한 어깨 살 덩어리를 2시간에 걸쳐 삶아낸 수육은 푸짐한 식사는 물론 술안주로도 그만이었다.

“오늘은 우리 모녀에게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딸이 얼마 있으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위해 떠납니다. 통역 봉사 활동을 위해 가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방학에 딸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낼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멋진 셰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 행운을 얻었으니 정말 뿌듯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찬일 셰프도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다. “인터뷰나 언론에 가급적이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오늘은 멧힌 데 없고 겸손한 분들이 손님으로 찾아와주셔서 평소 안 하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셰프는 귀담아 들어야 할 예리한 말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오랜 시간 취재를 해서 펴낸 <노포의 장사법>은 시대와 세월이 담긴, 사회사 안에서 바라보는 책입니다. 대를 이어 이어온 ‘노포’가 그러하듯 학생들이 먹는 급식도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예요. 선생님들께서 급식을 통해 미각 교육, 관련 노동자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나라의 지속적인 관심과 급식의 질 개선,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변화가 순차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과 급식 시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광화문 몽로**

다양한 주류와 퓨전 스타일 메뉴가 가득해 허기를 채울 식사부터 퇴근 후 한잔까지 모든 것을 즐기기에 더없이 훌륭하다. 라이스 페이퍼에 싸서 튀긴 바삭바삭한 닭고기는 몽로의 대표 음식으로 술안주는 물론 메인 음식으로도 손색없다. 티라미수는 정통 이탈리아식 디저트로 꼭 한번 먹어볼 만하다.

📍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40  
 ☎ 02-722-8767



**광화문국밥**

평양냉면과 돼지국밥으로 광화문 일대를 평정한 집이다. 평양냉면은 적당한 활기가 있는 면과 깔끔한 육수로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깊고 담백한 맑은 국물의 돼지국밥은 흑돼지와 얼룩돼지 등으로 감칠맛을 낸다. 8kg짜리 덩어리 고기를 천천히 2시간에 걸쳐 삶아낸 부드러운 수육도 인기 만점이다.

📍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53  
 ☎ 02-738-5688



**광화문 일대 걷기 좋은 길**

덕수궁과 광화문 돌담길, 정동길. 각기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곳을 지칭하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길로 꼽힌다. 서울시립미술관, 정동극장, 덕수궁, 배재학당 등 근현대사를 품은 역사적 건물이 가득하기 때문. 특히 가을에는 은행나무 덕분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관광객은 물론 연인과 가족의 발걸음이 끊이지 이어진다.

📍 서울 중구 정동



**광화문국밥**

본점 738-5688

일반음식점

잘 먹는 기술은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며,  
 그로 인한 기쁨은 결코 작지 않다.  
 - 미셸 드 몽테뉴





## 달고 쓴 경험이 모여 Bittersweet 남아프리카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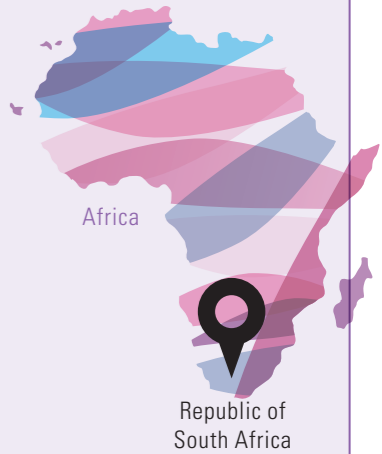
남아공에 온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좌충우돌 고군분투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다시 심기일전해 칠전팔기를 외치며 일어섰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드러눕기를 참 꾸준히도 반복했습니다. 이국땅에서 교육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아공에서의 달고 쓴 경험 'Bittersweet South Africa'를 소개합니다.

글·사진 이해원 (경기 예당고 교사)

### 레인보 네이션, 남아공!

남아공은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아프리카 서안을 따라 내려오다 드디어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린 '희망봉'이 있는 나라죠. 남아공은 수도가 3개입니다. 희망봉으로 유명한 케이프타운(Cape Town)은 남아공의 입법 수도, 블룸폰테인(Bloemfontein)은 사법 수도, 프리토리아(Pretoria)는 행정 수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요하네스버그는 경제의 중심지지만 수도는 아닙니다. 악명 높았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아실 겁니다. 인종차별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남아공은 모든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나라를 표방하며 스스로 레인보 네이션(Rainbow Nation; 무지개의 나라)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종과 언어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영어, 아프리카스어, зулу어 등 무려 11개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남아공의 인구 분포는 대략 흑인 80%, 백인 10%, 칼라드(Co-loureds)와 아시아인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견을 준비할 때 '남아공 교실 풍경은 다른 아프리카와는 다르지 않을까?' 상상했지만, 남아공에 오고 나서야 암묵적으로 흑인 학교, 백인 학교가 나뉘어 있다는 걸 알았고, 비단 학교뿐 아니라 주거 지역조차 흑백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더군요. 제도적인 인종차별은 끝났지만 이들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걀 선생님의 좌충우돌 우여곡절 학교생활

제가 일하는 보코니 기술 중·고등학교(Bokgoni Technical Secondary School)는 8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이 함께 모여 공부합니다. 처음 출근한 날 교장 선생님은 프리토리아 전 지역을 통틀어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학교'라고 소개해주었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지만 많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첫 미션은 갓 입학한 8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평가였습니다. 남아공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가장 쉽게 출제했죠. 예를 들면 "태양계의 행성을 순서대로 써보세요. Mercury-(빈칸)-Earth-(빈칸)-..." 이런 문제입니다. 출제하면서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찌지? 수준을 높여야 할까?' 수십 번 고민했는데, 막상 채점을 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죠.

아이들의 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Mercury-Sun(태양)-Earth-...' 'Earth-Mass(질량)-Jupiter-...' 'Saturn-Urine(오줌)-Neptune-...' 태양계 행성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들과 어떻게 중학교 과정을 소화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아랑곳없이 학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해원 선생님이에요. '혜원'은 어려우니까 그냥 '멤 리'로 불러도 돼요". 저를 소개하자 아이들이 슬며시 웃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한 명을 조용히 불러 왜 웃었냐고 물으니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세페디 말로 '리'는 'egg'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달걀 선생님이예요." 우리나라 중2에 해당하는 9학년을 맡아 수업 진행도 했어요. 그중 A반은 기운이 넘치는 등 다른 반의 분위기와 매우 달랐습니다. 다른 반보다 키가 현저히 크고 활동량도 많아 번번이



수업이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A반은 줄루족, 다른 반은 세페디족이라고 합니다. 줄루족은 'They are warriors!' 전사의 후예이니만큼 가정의 양육 방식도 달라 유독 힘이 넘치는 부족입니다. A반과의 수업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매일 이러면 너희 반은 매일 시험만 볼 거야!" 선언하고, 아예 수업을 할 때마다 시험지를 만들어 갔죠. 매일 시험지를 만들고, 퇴근해서는 집에서 채점만 했어요. '이게 웬 고생인가' 싶더군요. 수업에 집중하는 E반 아이들은 조금만 소란스러워도 "너희, 시험 본다?" 하면 입을 딱 다물고 죄송하다는데, 도대체 왜 A반은 시험을 본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니.



그렇게 반년가량 A반 아이들과 씨름하며 수업을 했습니다. 매년 6월에는 하우텡주(州)에서 실시하는 학력 평가가 있는데, 결과를 보고는 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A반 성적이 E반보다 '월등히' 좋았거든요. '못난 놈 딱 하나 더 주다' 보니 어느새 더 이상 못난 놈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없이 해맑은 아이들은 방학식 날 '우리가 언제 선생님 속을 상하게 한 적이 있냐'는 듯이 "다음 학기에 만나요!" 하고 떨어집니다. 저 아이들이 4학기 때에는 좀 암전해지려나 스욕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개학 날, 칠판을 보고 다시 깨달았죠. 아, 또 속았다. A반에서는 역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계속된다는 걸요.

해가 바뀌어 10학년이 된 A반 아이들을 교정에서 마주치면 반가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작년에 더 친절하게 대해줄걸' '10학년 공부는 어렵지 않을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더 많이 도와줄걸' 하는 오만 가지 생각에 미안한 웃음을 지을 때, 아이들이 우렁차게 인사를 합니다.

"Ma'am Lee, We miss you! Why don't you come to Grade 10 and teach us again(선생님이 그리워요! 10학년에 오셔서 다시 가르쳐주세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 그저 이끌리는 대로

남아공에 있다고 하면 많은 분이 불안한 치안을 걱정하십니다. 범죄 발생률 1위로 악명 높은 나라인 건 사실이니까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경계하고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 걸요.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남아공 사람들이 되물습니다. "북한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

어쩌다 보니 저는 교직 경력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길지 않은 경력이지만 한국과 해외 근무 중 어느 쪽이 더 어렵다, 힘들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충이 있는 만큼 고유의 즐거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많은 젊은 교사의 도전을 묵묵히 지원해주신 교장, 교감 선생님과 많은 실무 담당 선생님의 배려, 그리고 '이 철없는 게 이번엔 또 어딜 가나' 하시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응원해준 가족들 덕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해원  
경기 예당고 교사  
교사 되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다. 아이들보다 내가 더 철이 없는 것 같기도. 2014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어쩌다 남아공에까지 와서 교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국제교육 분야 전문가가 꿈이 된 7년 차 교사.





# 주말마다 던진다, 친다 그리고 행복하다

## - 청주시 교직원 야구 동호회 '주말마다' -

소년들에게 야구는 찬란한 꿈이다. 마운드에서 삼진 아웃을 잡아내거나 타석에서 홈런을 치고 관중의 뜨거운 환호성을 들으며 더그아웃으로 들어오는 꿈은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근사하고 짜릿한가. 여기, 그 꿈을 이룬 남자들이 있다. 청주시 교직원이 모인 야구 동호회 '주말마다' 회원들이 바로 그 행운아들이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 주말마다 유쾌하다, 주말마다 즐겁다

폭염에 그만두기에는 야구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크다. 그늘에 숨어버리느니 차라리 작열하는 태양과 정면으로 맞서는 게 낫다. 지난 8월 6일 오후, 청주종합운동장 야구장에 모인, 주말이 아님에도 모인 '주말마다' 회원들은 야구에 대한 애정 하나로 뽕뽕 뭉친 오늘의 주인공들이다. 방학 중이지만 평일임에도 꽤 많은 인원이 시끌벅적 모인 것만 봐도 평소 '주말마다'의 분위기가 어떨지 은근히 감이 잡혔다.

"저희는 2006년 창단한 동호회입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야구를 한다는 의미에서 '주말마다'라고 이름 지었고요.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하게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를 이끌고 있는 정상훈 감독(북이초 행정실 주무관)이 온화한 덕장(德將)의 느낌을 풍기며 조근조근 설명했다.

현재 '주말마다'의 회원 수는 24명. 청주시의 초·중·고교 교사는 물론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기관 직원도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그 문턱을 낮춰 자영업자나 직장인도 조금씩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각자의 공통된 취미를 위해 모였지만 사실 '주말마다'는 지역에서 많은 이에게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평균 3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에 비춰보아 무려 12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남다른 팀워크까지 보여주는 것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 야구로 하나 되는 우리

그렇다면 '주말마다' 야구 동호회는 어떻게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팀을 지속해왔을까? "꾸준히 경기와 연습에 참여하는 충성도 높은 회원들은 우리 '주말마다'를 이끌어온 근간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희 동호회에는 다른 야구 팀이 갖기 힘든 특징이 있어요. 바로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모두 출전한다'라는 공식입니다."

정상훈 감독의 말에 최홍성 회원(음성 용천초 교사)이 자세한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창단 초기에는 다들 열심히 하면서 잘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3년 정도가 지나면 하나둘씩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야구 잘하는 회원이 주전이 되고, 꾸준히 열심히 나오는 분이 출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기고 싶은 욕심이 크니까요."

또 하나, 회사에서 조직된 팀은 직장 내 위계가 주말에까지 이어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마치 직장 상사에 이끌려 등산을 가는 기분으로 운동장에 나오는 팀원이 생기면서 처음의 열의가 점점 식어간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저희는 '교육'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있지만 각자 일터는 다르니







다. 그런 위계에서 자유로운 거죠. 또 일단 운동장에 나오면 서로 직업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형님, 동생 하면서 자유롭게 운동을 합니다.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되 존중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죠.”

‘주말마다’는 이처럼 다른 팀과 다른 차별점을 드러낸다. 한두 번 더 지더라도 일단 참가한 선수에게는 공평하게 출전 기회를 주는 것. 승부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 승패를 가르는 자잘한 실수들이 타 팀보다 훨씬 적은 것. 혹여 지더라도 형 때문에 졌으니, 아우가 실수를 했으니 아용다용하지만 그나마도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뒤끝이 없으니 이보다 마음 가벼운 모임은 없는 셈이다.

여기에 하나 더, 허남국 회원(청주중 교사)은 “동종 업계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운동을 하니 야구 말고 학생 지도나 업무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라고 자랑을 보냈다. 이쯤 되니 ‘주말마다’가 12년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행복 흘린! 스트레스 아웃!**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되는, 예측할 수 없는 경기가 바로 야구라지만 ‘주말마다’의 성적은 꽤 훌륭하다. 청주시야구협회 사무국장이기도 한 이범식 회원이자 코치는 “청주시 사회인 동호회의 토요일리그에 속해 있는 ‘주말마다’는 그중에서 현재 1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아직 시즌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최종 성적은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동안 참가하는 대회마다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던 ‘주말마다’는 창단 6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고, 2016년 제3회 충북도공무원야구대회에서는 도내 16개 팀과 경쟁해 우승기를 들어 올리는 저력을 뽐내기도 했다. 경기가 중요한 스포츠 동호회에서 좋은 성적은 당연히 회원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고 참가하는 즐거움을 만들어준다. 이 또한 ‘주말마다’가 오래 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동호회 가입은 제각각이었지만 야구를 통해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의 양은 회원 모두가 비슷했다. 최홍성 회원은 승리의 기쁨을 모두가 낙오자 없이 등산에 성공했을 때의 느낌과 비교하며 “직업에서 잠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리셋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이범식 회원은 “창단한 지 6년 만에 전국 대회에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며 우승을 차지했죠”라며 당시의 추억을 가장 기쁜 일로 손꼽았다.

조병일 회원(용성중 교사)은 종일 누워 자거나 TV만 보는 무기력한 주말이 아니라 풍요로운 주말을 즐기게 됐음을 자랑했고, 사공담 회원(중앙초 교사)은 “경기가 열리는 날만큼은 진짜 야구 선수가 된 것 같은 기쁨, 타석에 들어섰을 때 온전히 주인공이 된 듯한 희열”을 야구를 통해 얻은 선물로 꼽았다. 늘 눈으로만 보던 야구를 직접 마운드에 들어서서 함으로써 특유의 매력을 느끼고, 이를 다시 아이들 교육에 적용해 여학생들에게 티볼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김광진 회원(전 대성여중 교사), 알음알음 친분이 있던 회원들과 각별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좋다고 말하는 고맹수 회원(서원고 교사) 역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야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야구를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회원끼리 실없는 농담도 하면서 웃다 보면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싹 가십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회원 모두가 다치지 않고 끝까지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 향후에는 전국시도교육청대회에도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나갔었는데 최근 들어 비용이나 체력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청주시 리그 외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야구를 통해 우리 청주시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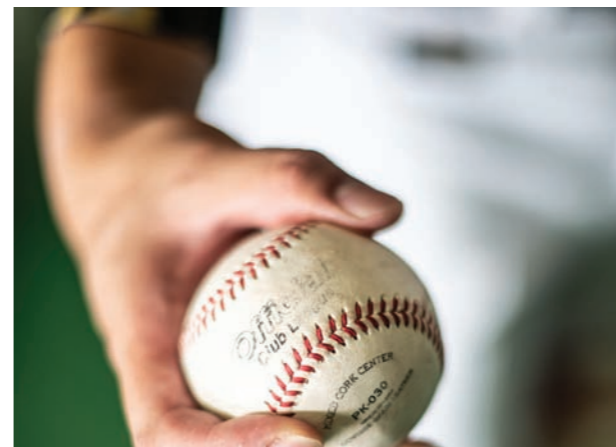
정상훈 감독이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흔히 야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기에 선부른 포기도, 순간의 교만도 허용하지 않는 운동,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다부진 뚝심이 가장 필요한 경기. 취미로 모였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현실 속에서 굳건히 발을 내딛는 ‘주말마다’ 회원들에게 야구는 어쩌면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빠른 통로가 아닐까? 땀방울 아래 ‘와~’ 함성을 지르며 달려 나가는 회원들의 모습이 더없이 근사해 보였다.



**주말마다**

야구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주말마다’ 야구 동호회는 각별한 동지애로 유명한 팀입니다. 구경으로 만족하던 야구 경기에 직접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주시요. 운동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고민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말마다’에 참여하신다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 감독 010 4031 7881/ 총무 010 9426 8246







붕붕붕~

사랑과 응원을  
한가득 담은  
커피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창간 1주년을 맞은 <The-K 매거진>의 이벤트 막이 올랐다. 지난 1년간 공제회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The-K 매거진>이 커피트럭과 함께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 사랑하는 동료, 제자, 선후배를 위한 마음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The-K 매거진>이 마련한 정성 가득한 커피트럭! 우리, 시원한 커피 한잔하실래요?

글 이경희 사진 황원·유근종·이상윤







## 2018년 1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시원한 커피 한잔 씁니다!

### 무더운 대구, 시원한 커피, 작은 축제의 현장

7월 20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이글거리는 전국. 그중에서도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엄청난 더위와 싸우고 있었다. 그런 대구에 위치한 새론중학교는 주변에 흔한 카페 하나 없는 곳. 아침마다 김장환 수석 교사가 내려 주는 드립 커피와 인스턴트커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공교롭게 커피트럭이 방문한 날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 종업식을 끝낸 교사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커피트럭을 향해 모여들었다.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신설 학교이다 보니 워낙 선생님들이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아요. 영양사인 제가 유일하게 선생님들 얼굴을 보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때는 급식 시간뿐이지만, 하루 중 그 시간에 가장 바쁘니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 외에 한참 동안 얼굴을 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신청했어요.”

커피를 마시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교사들과 정을 나누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 홍주연 영양사의 얼굴에 애정이 감돌았다.

커피트럭 주변이 들쭉거리니 주변을 지나던 학생들 역시 호기심 가득한 눈초리로 기웃거렸다.

“어? 커피트럭은 연예인들만 찾아오는 건데!”

지나가던 한 학생의 큰 소리에 교사들이 폭소를 터트렸다.

“커피트럭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일부러 사연을 보내 시원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준 홍주연 영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학교 급식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으로 유명한데, 시원한 커피와 음료까지 챙겨주시니 정말 감동했습니다.”

학교 생활 수십 년 만에 커피트럭이 학교를 찾아온 건 처음이라며 이구동성 홍주연 영양사와 교직원공제회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새론중 교직원들. 그들에게 <The-K 매거진>의 커피트럭이 무던한 일상에 시원하게 쏟아진 소나기처럼 행복한 기억이 되길 바란다.



신청자

홍주연  
대구 새론중  
영양사







## 애들이 사랑해! 국토 순례로 힘든 하루, 시원한 음료로 풀자!



아홉 번째 국토 순례, 누적 거리 1000km 달성, 여기는 통영!

7월 23일, 이날 손님은 서울 동성고 학생들이다. 동성고 학생들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아홉 번째 국토 순례길에 나섰다. 지금껏 파주를 시작으로 한반도를 한 바퀴 돌아 올해는 거제-남해 구간을 걷는다. 이날은 국토순례를 나선 지 이틀째, 새까맣게 그을리고 꼬질꼬질해진 아이들이 열 맞춰 줄줄이 통영오토캠핑장에 들어섰다. 환영의 박수가 절로 나오는 순간, 아이들에게는 시원한 음료를, 교사들에게는 커피를 선물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낸 김현화 교사가 아이들 틈 사이에서 손을 흔들었다.

“노동석 선생님의 기획으로 매년 구간별로 걸어요. 올해로 한반도 해안선의 3분의 2 정도를 걸은 셈인데, 4박 5일간 국토 순례를 신청한 1·2학년 학생 32명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김현화 교사는 당연히 쉽지 않은 여정이라 말했다. 이른바 인내심과 체력이 약한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에 7시간 안팎을 걸으려면 다니는 내내 부상과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긴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편하게 가려고 피를 내고, 조금만 아파도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죠. 친구들이 열심히 걸으니까 덩달아 걸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동성고 학생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그저 즐겁고 신나기만 하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발목이 아파도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 선생님이 있는 것은 물론 시원한 ‘음료 트럭’이라는 뜻밖의 선물까지 받으니 말이다.

“발도 아프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마음껏 마시니까 너무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두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가는 해 질 녘 오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았다.

“시원한 커피 마시고 마지막까지 무사히 완주하세요!” <The-K 매거진>의 응원 소리도 더불어 울려 퍼졌다. 마지막까지 발걸음을 놓지 않은 그들의 1000km 완주를 축하하며.



신청자 김현화 서울 동성고 교사





## 커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약제팀을 위해!

### 환자를 위해 흘린 땀방울, 오늘은 아이스커피로 충전!

8월 3일,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던 날. 이런 날씨에 에어컨이 없다면 어떨까? 순천향대 부천병원 약제팀에서 근무하는 조혜지 약사가 커피트럭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지금처럼 폭염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엄청난 더위와 싸우고 있었어요. 약제팀에 있는 가장 큰 에어컨이 고장 나 제 기능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환자 분들께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제와 투약, 복약을 하기 위해 모두 구슬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우리 팀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약제팀은 지하 1층에 위치해 뜨거운 습기와 열기가 물린다. 게다가 여러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계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도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겨울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도 에어컨이 꼭 필요하다고. 다행히 지금은 에어컨 수리가 끝나 선선한 가운데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점심시간에 맞춰 커피트럭이 오픈하자 저 멀리서부터 하얀가운을 입은 약제팀 팀원들이 하나둘 달려 나왔다. 한 손엔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다른 한 손엔 달콤한 쿠키를 들고 조혜지 약사를 찾은 팀원들. 평소 커피 없이는 일하기 힘든 약제팀을 위해 커피트럭을 신청한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약제팀 전원이 조혜지 약사에게 박수를 보냈다.

“<The-K 매거진> 창간 1주년 기념 커피트럭 이벤트 너무 좋아요. 창간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더 자주 챙겨 볼게요. 한국교직원공제회 담당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소풍날의 묘미는 친구들과 나눠 먹는 도시락이 아닐까? 오늘의 즐거운 분위기를 간호부를 비롯해 국제의료협력팀, 원무팀, 의공관리팀, 주차관리팀, 진단검사의학팀, 총무팀 등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근무하는 여러 교직원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의 웃음소리만큼이나 따뜻한 마음과 앞으로도 환자를 위해 땀 흘릴 그들의 열정을 다시 응원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직원 여러분, 파이팅!



신청자

조혜지  
순천향대  
부천병원 약제팀  
약사







# 나를 더욱 빛내줄 가을 패션 아이템

저 멀리 가을이 다가온다. 피부에 닿는 바람도 신선한 가을의 기운을 품는다. 이 계절을 즐기기 위해 분위기를 바꿔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의류, 모자, 신발 등 가을을 빛내줄 패션 아이템 속 재미있는 이야기로 떠나보자.

글 엄용선 일러스트 청운



## 가을 패션의 대명사 트렌치코트

가을의 정취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트렌치코트는 멋보다 기능에 충실했던 탄생 배경을 지녔다. 이야기는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적군은 물론 추위와도 맞서 싸워야 했던 군인들에게 체온 유지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 잦은 비에 젖지 않으면서도 통풍이 잘되는 특수 소재 개발에 공을 들인 패션 브랜드 버버리는 이집트산 면에 특별 방수 코팅 기술을 접목해 '개버단'이라는 직물을 개발했다. 트렌치코트의 면면을 살펴보면 곳곳에 이유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멧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세워봤을 목깃은 영국의 습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으며, 탈착이 가능한 내피는 보온과 통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전쟁이 끝난 후 영화 속 주인공이 입고 나온 트렌치코트는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오늘날 가을 패션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 다양한 변신의 귀재 스카프

스카프 또한 아깝지 않은 투자 품목이다. 목에 둘둘 말아도 되고, 묶어도 되고, 허리띠처럼 감아도 된다. 묶어서 머리띠로 써도 되고, 홀터넥으로 입어도 된다. 옷장 속 그 어떤 아이템보다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만큼 과히 그 쓰임이 방대하다. 스카프는 1780~1880년경 여인들의 목에 감싸던 '피슈(fichu)'라는 한 장의 천에서 기원한다. 당시 가슴이 깊이 파인 데콜테 의상이 민망하던 여인들은 목 주변에 천을 두름으로써 정숙함을 표현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로 과일 다발처럼 풍성하게 부푼 가슴으로 연출하기 위해 왕왕 스카프를 활용했으니 그 아이러니가 재미있다. 그래서였을까? 프랑스에서는 '피슈'를 '피슈망퇴르(fichu-menteur)'라고 불렀다. 그 숨은 속뜻은 바로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 패셔니스타의 선택 페도라

개성 있는 스타일링의 포인트 액세서리는 물론 정신없이 바쁠 때 미처 정돈하지 못한 헤어스타일을 커버하는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 그 활용도만큼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해온 모자는 여러모로 유용한 패션 아이템이다. 가을은 특히 '페도라'가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1882년 초연된 프랑스 극작가 빅토리앵 시르두의 희곡 <페도라>. 극 중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가 주인공인 페도라 로마노프(Fedora Romanoff) 공주를 연기하면서 가운데에 큰 주름이 잡힌 챙이 유연한 모자를 썼고, 이후 이 모자가 인기를 끌면서 알려졌다. 처음 여성의 모자로 등장한 페도라는 1920년대 이후 영국 왕 에드워드 8세가 착용한 것을 시작으로 중산모자와 톱 헤드드를 대체하면서 남성 패션의 한 부분이 되었다. 각이 잘 잡힌 모양은 캐주얼 룩에 맵시와 참신함을 더해 가을 패션을 완성한다. 올가을 페도라와 함께 당신의 패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보자.



## 격조 있는 영국풍 스타일링 체크 패턴 &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산물 페어아일 니트

타탄체크라고 일컫는 체크 패턴은 영국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에서 유래한다. 바둑판무늬 또는 그 무늬의 직물을 일컫는데, 교차되는 각각의 색상은 가풍에 따라 색이 다르다. 오늘날 영국 패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합병하면서부터다. 그 후 스코틀랜드의 부활을 두려워한 잉글랜드 의회가 씨족의 단결을 상징하는 타탄 체크 사용을 금지했으나 빅토리아 여왕의 해안으로 다시금 부활했다. 니트의 종류는 크게 '아란' '페어아일' '브레통' 세 가지로 나뉜다. 아란은 아일랜드 서쪽 어부들이 입던 옷이었으며, '페어아일'은 스코틀랜드 페어아리섬에서, '브레통'은 프랑스 지역 상인들의 작업복에서 유래했다. 이 중 문양이 가장 화려한 페어아일은 서민들의 옷이었으나 당시 최고의 패셔니스타였던 윈저 공의 깜짝 이벤트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윈저 공의 살신성인으로 귀족들은 앞다퉈 재킷 안에 페어아일 니트를 입었고, 아이비리거의 상징이 되었다.



## 실용성에 대한 멋 디커 부츠

몇 년 전 미니멀리즘과 농코어 룩이 패션 마이너리그에 머물던 플랫 슈즈와 스니커즈를 패션의 한가운데로 끄집어냈다면, 최근 1970년대 복고풍 트렌드는 편안한 굽의 디커 유행을 부추겼다. 디커는 본래 웨스턴 부츠를 짧게 변형한 슈즈로 19세기 서부 카우보이 부츠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원조는 프랑스 디자이너 이자벨 마랑. 디커 부츠는 브랜드 이자벨 마랑의 대표 신발 상품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짧은 웨스턴 부츠를 일컫는 대명사가 됐다. 스트리트 믹스 매치 룩이 대세인 요즘 패션 거리에서 디커의 유행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아찔한 데님 쇼츠나 나풀거리는 보헤미안 원피스에 발목까지 오는 디커 부츠로 꾸미지 않은 듯 멋을 낸 여자들. 다소 남성적이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스타일링에 반전과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 우리가 디커 부츠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 런던의 시작, 공원의 탄생

낮선 연인의 입맞춤을 오래 바라보는 중이다. 머뭇거리다가 사진을 찍어도 괜찮은지 물었다. “대신 가장 찬란한 표정으로 남겨줘요.” 이어지는 수십 번의 키스에 찰칵, 찰칵 카메라 소리가 감긴다. 나뭇잎 사이로 잘 익은 햇살이 번지고, 공원에는 웃음기 많은 사람이 가득하다. 오후의 공원 앞에서 매일매일 사랑이, 삶이, 도시가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

글 양정훈(여행작가, ARTRAVEL 편집장) 사진 양정훈 외





인구 천만의 도시, 런던. 이 정도 규모의 메가시티(Megacity)라면 회색 도심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런던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여기저기 초록이 가득하다. 길은 몇 개 블록을 지날 때마다 어김없이 공원을 만나고, 공원마다 아끼는 이들과 산책 나온 사람이 넘친다. 나무와 잔디, 작은 호수가 도시의 삶을 뽐나게 담아낸다.

**당신의 도시를 사랑하십니까?**

서울. 언젠가 바쁘게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신은 이 도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상대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설문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제 20년을 맞이하는 서울에서의 삶. 나는 여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머뭇거리다가 주어진 척도의 중간 어딘가에 점을 찍었다. ‘이 도시를 사랑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답란을 어떻게 채울지 몰라 망설이다가 빈 설문지를 건넸다.

런던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을지 모른다. 실제로 런던의 한 사회대학원에서 도시문화에 관한 특강을 들었을 때 비슷한 맥락의 이슈가 있었는데, 교수는 런던의 크고 작은 공원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몇 가지 유의미한 통계를 제시하며 확신에 차 말했다. 런던은 공원이 많기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자부심이 각별하기로 유명하다.

**런던이 던지는 질문**

살아남는 것-생존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시대를 지나 경제, 문화, 정치 등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이제 질문은 어떤 종류의 삶을 지향하는가로 진화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로가 뚫리고, 건물이 서고, 사람들이 차면 이제 무엇을 지향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인가로 화두는 옮겨간다. 런



던은 이 질문에 대해 일찍부터 공원이라는 해답을 선택한 도시다. 그 속에는 숲이 없는 도시는 호흡하지 않는 거대한 무기체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과 대립하는 도시에 사는 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다는 통찰이 있었다.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서 백배를 훌쩍 넘는 리젠트 파크(The Regent's Park), 하이드 파크(Hyde Park), 세인트 제임스 파크(St. James' Park) 등 대규모 왕립공원과 더불어 작은 블록 공원을 합치면 수백 개의 공원이 촘촘히 감싼 도시. 땅값과 물가가 서울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비싸기로 악명 높은 런던에서 이런 녹지를 지키고 확장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런던을 가장 런던답게 하는 것은 왕가의 오랜 전통이나 대영제국의 과거에서 기원한 자부심이 아니라 도시 곳곳마다 숲과 공원을 심고, 그 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꿈꿔낸 역사와 시민성에 있는지 모른다.

- 1. 런던 서부 로헨튼 지역의 작은 블록 공원 점심시간을 맞아 학생들이 산책을 나왔다.
- 2. 도시는 공원을 품고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 3.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거위들이 헛것 식구를 놀렸다.
- 4.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도심 곳곳의 공원은 좋은 피크닉 장소.







5

사실 이 공원의 정경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다. 오전 일과를 끝내고 다시 오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초록의 정원은, 하루를 끝내고 조용히 산책하며 나누는 나무와의 대화는, 한 주의 끝에 큰 각오 없이 가볍게 나와 가슴에 담는 노을과 숲의 황혼은, 도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더없이 귀한 멈춤이다.

###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하기

먹구름이 걷히고 새 햇살이 창에 들어차면 나는 런던의 공원에 나가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다. 여행의 처음에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건물과 명물 이층 버스가 먼저 눈에 띄었고, 여행이 좀 더 익으며 런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템스 강변과 코벤트 가든의 시장, 노팅힐 같은 거리가 보였다. 그러나 런던에서 시간을 더 보내면서 삼삼오오 공원에 모여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펼쳐놓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더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사실 이 공원의 정경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다. 오전 일과를 끝내고 다시 오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초록의 정원은, 하루를 끝내고 조용히 산책하며 나누는 나무와의 대화는, 한 주의 끝에 큰 각오 없이 가볍게 나와 가슴에 담는 노을과 숲의 황혼은, 도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더없이 귀한 멈춤이다. 치열한 삶 속에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소중한 도시의 쉼표다.

### 공원의 도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런던은 현대적 의미의 도심 공원이 기원한 도시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Stanley Park)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심 공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추적하다 보면 어김없이 런던에 도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런던의 공원들은 어떤 서사와 변화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을까? 중세 시대까지 런던의 공원들은 영국 왕족과 귀족의 사냥터였다. 숲과 들판, 호수를 엮어 크게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냥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한 공간을 헌팅 파크(Hunting Park)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1700년대 중·후반을 지나며 일부 시민에게 조금씩 개방되었는데, 왕권이 약화하고 입헌군주제가 수립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절대왕정 시대를 벗어나며 시민의 지지와 호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그 수단으로 왕족 사냥터



6



7



8



9



### 런던의 공원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규모의 런던 공원을 느끼고 싶다면 하이드 파크, 리젠트 파크, 세인트 제임스 파크 등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서 몇 시간 짬을 내는 정도로는 둘러보기 어려우니 적어도 반나절 혹은 하루를 잡아 방문하길 추천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런던 공원의 백미는 거리 불록마다 형성되어 있는 작은 공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일정을 조금 느슨하게 잡고,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는 중간중간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서 톱툰이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런던 사람들이 공원을 즐기는 것처럼요.

5. 아이들이 한창 소꿉놀이엔 열중하고 있다.
6. 하이드 파크의 정경.
7.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에게도 도심 공원은 행복을 선물한다.
8. 하이드 파크의 야생 앵무새가 나무를 찢고 있다.
9. 런던 공원의 연인들.
10. 런던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애착은 그들이 공원을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는지에서 알 수 있다.

의 녹지가 시민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이후 근·현대 도시국가 체제가 완성되며 시민권이 확장되고, 공원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폭발했다. 귀족이 독점 소유하던 공원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축소되고, 더 많은 시민이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19세기를 통과하며 영국은 경제, 정치, 문화의 대전환기-산업혁명을 맞이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박탈감을 줄이고, 계급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되는데, 도심 속 시민과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대안으로 공원의 역할과 기능이 주목받는다. 1800년대 후반에는 가속화된 산업화와 런던 인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이 부상하고, 그 핵심으로 헌팅 파크 중심의 커다란 공원 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 수없이 많은 소규모 공원이 조성되며 현재의 런던 공원 체계가 완성됐다.

### 새로 쓰는 도시의 삶과 사람들

공원 속에서 한껏 피워 올린 연인의 사랑을 사진 찍고, 잔디 위를 뒹구는 아이들과 잠시 산책 나온 근처 직장인의 발걸음, 웃을 아무렇게나 둘둘 말아 머리를 받치고 책을 읽는 학생들을 구경하면서 런던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깊고 진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런던을 공원의 도시로 만들고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공원의 자리에는 진작 높은 빌딩이 서고, 상가가 들어찼을 것이다. 영국에는 공원 조성 및 보호와 관련한 일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 수천 개에 이른다는 글을 읽었다. 1인당 녹지 면적에 있어 런던이 세계 1위라는 보도도 접했다. 그러나 이런 숫자들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확실한 것은 공원을 통해 일상의 재생, 매일의 끝과 시작에 활력을 더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 보는 일이다. 진짜 런던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공원-초록으로 잘 빛은 도시의 삶이 오래오래 나무와 흙과 햇살의 향기를 피우고 있었다.



10





# 우리 도시를 죽이지 말라! 여행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 - 투어리즘 포비아

유명 관광지에서 손님을 쫓아내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도시 입구에 관광객을 걸러내는 검문소를 만들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단체 관광을 반대하며 투어 버스를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단 세계적인 관광지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 북촌과 제주도에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몰려드는 관광객을 두려워하는 '투어리즘 포비아'가 번져나가고 있다.

글 이명석 (문화비평가)



### “저희 집은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

올해 초 폭발적 인기를 모은 예능 프로 <효리네 민박>의 무대였던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집을 방송사인 JTBC가 직접 매입했다. 방송 이후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사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효리네 민박>을 촬영하기 이전에도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울리는 초인종과 경보음으로 저희 가족 모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까지 몰려오는 여행객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비단 유명인만이 아니다. “새벽부터 찾아오는 관광객, 주민은 쉬고 싶다”라며 서울 북촌한옥마을 입구에서는 매주 토요일 ‘관광객 방문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고즈넉한 한옥마을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평화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단체 관광객이 골목길을 점령하고 있고, 대문을 살짝

만 열려 있어도 마당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다. 담벼락에는 일회용 음료 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심지어 대소변을 보는 일도 있다. 전주한옥마을, 통영 원항마을,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 독특한 분위기로 여행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지역의 명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용하고 매력적인 동네가 여행객의 관심을 받자 카페,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가 차례로 생겨났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것들을 기대하며 이런 변화를 반겼다. 하지만 이제는 밤낮으로 고성방가를 일삼는 여행객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경찰이 불법 업소를 무더기 적발하고 있지만, 이미 무너진 독을 쉽게 수습할 수는 없다.

### 관광객은 침략자, 투어리즘 포비아

이처럼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과 사생활 침해를 겪는 상황은 ‘투어리즘 포비아(Tourism Phobia)’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적정 수 이상의 관광객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컫는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이라는 말도 더해졌다. 임대료 폭등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빚대어 관광객 때문에 주민이 내몰린다는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이라는 말도 생겼다.

세계적인 관광지는 수십 년 전부터 이와 비슷한 고통을 받았고, 최근에는 이를 막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좁은 수로가 미로처럼 이어진 전통의 관광도시다. 그런데 한 해 관광객이 3000만 명에 이르자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물가는 오르고, 환경오염은 수습 불가 상태에 이르렀다. 한때 17만 명에 이르던 거주 인구가 5만 명까지 감소하자시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4월부터 도심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검문소를 설치해 주민과 호텔 예약자만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팔마 등지에서는 관광 산업에 저항하는 시위대가 과격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유명 관광지인 구엘 공원의 기둥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구호를 외쳤고, 관광객이 즐겨 이용하는 공용 자전거의 바퀴를 터뜨렸다. 투어 버스를 탈취한 뒤 녹색 연기를 피우며 “관광객은 침략자”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5명 이상 가이드 투어를 허가제로 바꾸고, 20명이 넘는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등의 극약 처방을 내리고 있다.

### 여행도 상생이 필요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여행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데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KTX를 통해 강릉, 경주, 전주, 목포 등 국내 도시를 찾는 여행도 붐이다. 여기에 TV 여행 예능, SNS 입소문을 통해 관심을 받는 여행지에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는 몰림 현상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류 열풍을 타고 찾아오는 중국, 동남아 등지 단체 여행객이 더해져 여행지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여행 트렌드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여행자들은 전통적 대형 관광지보다 개성 있는 작은 마을, 구도심의 골목길 여행을 선호한다. 명동, 동대문, 코엑스 등 대규모 상업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주민들이 항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의 북촌·서촌한옥마을, 혜화동 벽화마을 등은 일반인의 거주 지역과 관광지가 혼재되어 있다. 에어비앤비 등 가정집을 숙박 시설로 이용하는 트렌드도 조용한 주거 지역에 여행자를 끌어들이

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벌 떼처럼 몰려드는 여행객을 밀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 베네치아처럼 관광객의 진입을 막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탄은 국가 차원에서 여행객의 수를 제한하고, 여행객이 문화와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하루 트레킹 인원을 통제한다. 필리핀은 한 해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보라카이섬을 폐쇄하고 대대적인 환경 개선에 나섰다. 바르셀로나는 신규 호텔 허가를 중단하는 시도를 하고, 서울 종로구청은 북촌 지역의 관광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은 주민들과의 상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이 모여 만든 마을로, 집을 독특한 색으로 칠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촬영 명소가 되었다. 그런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자 시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관광객이 다니는 구역을 제한하고 황토색 규사로 바닥을 포장했다. 이어 주변의 주민 생활 공간을 지키도록 에티켓 기준을 확실히 했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수익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금으로 ‘감내작은 목간’이라는 공중목욕탕을 만들었다. 관광객들이 봄비는 버스 대신 주민들만 무료로 이용하는 ‘행복 버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 아무것도 훼손하지 않는 여행을 위해

투어리즘 포비아는 우리의 여행 문화를 돌아보게 만든다. 매그넘 소속 사진가 마틴 파르는 1990년대부터 ‘글로벌 투어리즘’ 시리즈로 대규모 관광 문화를 꼬집어왔다. 피사의 사탑 근처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 아크로폴리스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관광객, 여행지 주변의 싸구려 기념품, 관광객이 빠져 지나가고 난 뒤 남은 쓰레기 더미... 이런 관광 문화가 이어지는 한 주민과 여행객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관광지보다는 일상의 공간에 조용히 스며들었다가 돌아오는 ‘산보 여행’이 인기를 모아왔다. 서구에서도 ‘아무것도 훼손하지 않는 여행’이 여행자 사이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앙코르와트 같은 유적지를 가더라도 가이드를 졸졸 따라 다니는 투어가 아니라 조용한 숲속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돌아오는 이도 있다. 어디를 가든 우리 발자취는 알게 모르게 흔적을 만들어낸다. 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여행지가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 미술관 옆 작은 책방 봄날의책방

나무 사이로 노란색 벽과 파란 대문이 보인다. 벽에 그려진 그림과 글귀를 따라간다. 그러자 통영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미술관 옆 작은 책방의 문을 열었다.

글 은수정·정수희 사진 한상무



### 사랑을 담아내다

사랑은 사랑으로 답한다. 김춘수의 어린 시절 보물을 품은 곳, 박경리의 오롯이 인생이었던 곳, 청마 유치환이 연서를 바친 곳, 연정을 위해 서울에서 통영까지 단숨에 달려온 백석의 노랫말이 시가 되어 담긴 곳, 그래서 곳곳마다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이 가득한 곳.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백석의 시 '통영' 중) 그래, 바로 여기는 통영이었다.

통영 곳곳에는 사랑이 넘친다. 가슴에 바다를 품고 나고 자란 그네들에게 통영의 바다와 별은 아마도 사랑의 원천



이 아니었을까. 이 사랑이 노래가 되어, 시가 되어, 글이 되어 깊은 바다의 해초가 되고, 바위의 따개비가 되어 통영 전체에 사랑을 내렸을 것이다. 온통 그 사랑은 책으로 엮어 한곳에 모인다. 그런 마음을 담아낸 곳, 봄날의책방은 애정이 가득하다.

### 작지만 암팡지다

바다를 품은 별의 뜨거움 때문일까. 통영 미륵산 자락의 봉수골에 자리한 봄날의책방을 찾아가기 위한 길은 눈이 부시지 못해 시렸다. 햇살이라고 말하기엔 강렬한 태양에 저절로 고개를 떨군다. 아래로 향한 시선을 따라 길을 걷는다. 태양이 시샘하듯 그림자와 함께 따라온다. 그렇게 그림자와 골목을 휘젓듯 걷다 보면







파란 대문이 시선을 끈다. 여기서.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위해 탄생한 공간, 봄날의책방이다.

봄날의책방은 출판사 남해의봄날이 운영하는 작은 책방이다. 남해의봄날은 다른 출판사와는 조금은 달리, 조금은 특별하게 길을 만든다. 일과 삶의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며 로컬 콘텐츠를 만든다. 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 온전히 사람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삶과 일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삶과 일에 새로운 생각거리를 더해 대안을 풀어내고 책으로 엮는다. 그 책은 봄날의책방 공간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소통의 장이 펼쳐진다.

**반짝반짝 윤슬을 담은**

파란 대문을 열자 책 냄새가 한가득이다. 책방의 공간은 넓진 않지만, 서가 구석구석을 살피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방마다 다른 테마로 볼거리, 읽을거리, 생각거리 투성이니까.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바다책방'. 통영 바다의 푸름을 한데 담은 것처럼 파란 색이 가득하다. 이곳에는 바다, 여행 그리고 그림책이, 아트 상품이 담겨 있다. 바다의 윤슬을 담은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그림책을 본다. 책을 보는 것뿐인데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것 같다. 한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지, 바다책방이라서 그럴 테지.

그 옆으로 '책 읽는 부엌'이 보인다. 이곳은 요리, 리빙, 환

경, 청소년 책이 준비하다. 안쪽으로는 통영에서 나고 자란 문인들의 책과 국내외 문학 서적이 있는 '작가의 방'이다. 오래된 타자기가 반갑다. 파란 하늘을 닮은 '예술가의 방'도 있다. 미술, 사진, 음악 등의 예술 책이 모여 있는 이곳은 2017년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작품을 전시, 체험하는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풍금. 윤이상을 서양음악의 길로 인도한 물건으로, 풍금 위엔 통영문화협회 시절 당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만든 교가 악보와 평전이 놓여 있다. 그의 음악을 느끼고 싶어 작은 의자에 앉았다. 플레이어 속 윤이상의 음표가 물결을 그린다.

**도란도란 머무름의 공존**

거실도 있다. 바로 인문, 사회 도서와 남해의봄날 책들이 한자리에 모인 '봄날의 서가'다. 이곳엔 책방지기가 지키고 있는데, 보물 같은 존재들이다. 방문한 날은 비파님이 지키고 있었다. 남해의봄날을 비롯해 봄날의책방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직급 대신 자신들만의 애칭으로 부른다. 남해의봄날 대표 정은영 님은 봄님, 건축가이자 봄날의책방 점장인 강용상 님은 흙님으로.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로 부르고 불린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렇게 봄날의책방은 통영의 큰 의미가 되었다. 38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폐가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지역 문화를 이야기하는 사랑방이 되었다. 한없이 감사하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통영의 보물이 또 하나 늘었다.



봄날의책방     경남 통영시 봉수1길 6-1     070-7795-0531







그림은 붉고 인생은 푸르다  
**2030 청춘공감**  
 한국화가 김현정 작가와 함께한 달빛 그림 여행

7월 12일 오후 7시,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는 전남 남원의 한옥 호텔 '남원예촌' 안마당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벚선코처럼 맵시 있게 올라간 처마 끝은 물빛 하늘을 새침하게 콕콕 찌는 듯하고 푸른 잔디 위에 얹힌 정자에서는 당장이라도 시 한 수, 노래 한가락을 뽑을 수 있을 듯한 나른함이 감돌았다. 여기에 자신의 독특한 미술 세계에 대중을 끌어들이며 '한국화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김현정 작가의 한국화 미술 강의가 더해지자, 비로소 유쾌하고 독특한 공기로 가득해졌다. 한국화가 김현정 작가와 함께한 달빛 그림 여행의 문이 열렸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남원에 활짝 핀 한국화 한 송이**

늦은 여름 저녁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2030 청춘공감, 김현정 작가와 함께하는 달빛 그림 여행'이라는 강의와 이다지도 잘 어울릴 풍경이 또 어디 있을까. 잔디밭을 지나 아름다운 기와를 이고 있는 '사랑마루'에 들어서서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국화에 대한 강의가 시작된 듯했다. 이날 강연자는 10만명 이상의 SNS 팔로어를 거느린 채 개인 전시회, 광고, 강의 등을 중횡무진 누비고 있는 김현정 화가이다. 한국화라는 전통적 화풍 속에서 새로운 기법을 통해 일상과 트렌드, 이야기를 담아내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와 교직원들의 만남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미술'과 2030 젊은 세대 교직원들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

평일 저녁, 전북 남원에서 개최된 행사임에도 무려 5.6: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늘 행사에 초대된 교직원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부부,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모인 이들에게 김현정 작가의 작품을 프린트한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의 아이돌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란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김현정 작가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첫인사를 건네자 좌중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조신하고 우아한' 이미지가 강한 한복을 김현정 작가가 입자 신선하고 발랄한 느낌이 물씬 살아난다. 강의 시작부터 고정관념을 깨는 그에게 모두가 초롱초롱 눈빛을 빛내며 집중했다. 자신의 그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한복을 입기 시작했다는 김현정 작가는 제일 먼저 한복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3년 전쯤부터 한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보는 사람들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오늘 결혼했냐, 국악을 하나, 한국무용을 하나에 이어 가장 인상적

인 말은 무속인이냐는 말이었지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전통 복식임에도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다는 고정관념에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하는 웃음이었다.

**내숭 없는 여인들과의 유쾌한 만남**

'김현정의 내숭 이야기'라는 문구가 스크린에 떴다. 그가 지금까지 창작해온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헬멧을 쓰고 한복 치마를 둘둘 걷어붙인 여인, 한복을 입고 당구 큐대를 잡은 여인, 오토바이를 타는 한복 입은 여인, 냉장고를 활짝 열고 온갖 인스턴트식품을 즐기는 한복 입은 여인. 공통점은 모두 한복을 입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시대를 사는 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상상할 법한 장면이 화폭에 생생하게 구현됐다는 것이다. 수다를 떨 듯, 동화 구연을 하듯 강의는 다양한 구성으로 생동감이 넘쳤다. 청중이 가장 흥미로워한 것은 얼핏 보면 그저 수채화처럼 보이는 그의 작품이 다양한 기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치미는 먹을 이용해 한국화의 정체성을 살려 표현하고, 저고리는 직접 염색한 한지를 붙였다는 것에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품을 더욱 꼼꼼히 살폈다.

한국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 또한 매우 흥미로웠다. 우리 옛 문화를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기본 설명을 시작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쓰기를 하던 조상들의 시선을 따라 그림 또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시선을 흘리며 봐야 한다는 것. 그림 속 사물들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상징을 파악하면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이 이어지자 여기저기서 바쁘게 메모하는 손들이 보였다.

**그림은 힘이 세다**

이어서 즐거운 체험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이 가장 즐거워한 것은 제시된 단어를 이용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집, 해, 달, 산, 나무 등 갖가지 단어가 주어지자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와 크레파스를 이용해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김현정 작가는 100인 100색 제작 각 그림을 그리는 공제회원 사이를 누비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친근하게 이야기를 건넸다. 모두가 그림을 완성하자 그는 각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설명했다.



집은 가정환경, 산은 나의 성격과 모습, 나무는 친구, 우물은 돈, 길은 미래에 대한 확신, 해와 달은 남녀의 상황, 뱀은 지금하고 있는 고민의 자리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진지하게 자신의 그림을 들여다본다. 그것도 잠시,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가자 사방에서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특히 가장 크게 반응을 보인 것은 집의 굴뚝에서 나는 연기. 연기가 크고 많을수록 '성욕이 강하다'라는 의미였다. 이 외에도 나무에 나이트를 그린 사람은 아픈 기억이 많은 사람이고, 뱀이 집 근처에 있으면 가정에 대한 고민, 나무 옆에 있으면 친구에 대한 고민, 길 위에 있으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에 모두가 자기 자신을 반추한다. 성격부터 성욕까지 다양한 상징이 담긴 서로의 그림을 비교해가며 "딱이다!" "신기하다"라고 즐거워한 것.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재미와 감탄을 금치

못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김현정 작가의 그림이 담긴 엽서에 색칠을 하고, 그 뒤에 편지를 쓰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편지를 읽을 사람을 찾자 용감하게 손을 든 참여자! 군대에 간 동생을 그리워하며 애절한 마음을 읽어내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했으나 내용 말미에 사연 속 주인공이 남동생이 아닌 여동생으로 밝혀져 모두에게 반전의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강의 내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귀를 기울인 장슬지 교사(순천 동명초)와 황득경(순천 황전초) 교사는 이구동성으로 "문화 행사가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아쉬웠는데 남원에서 이런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김현정 작가 역시 이날 강의가 스스로 매우 만족스럽고 보람 있었음을 고백했다.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척 즐거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께서 화가는 배고픈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화가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또 교직원공제회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강연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세심히 챙겨주셨는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강의와 잘 어울리는 이 아름다운 공간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합니다."

달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여름 밤, 모두가 사랑마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마무리한 하루, 김현정 작가와 그의 그림을 통해 만난 신세계가 2030 공제회원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미학의 세상을 열어줬기를 바란다.



**MINI INTERVIEW**



**이경옥 회원(전남 광양교육청), 이보영 님**

솔직히 오늘 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들으니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양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김현정 작가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들으니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림을 통해 심리 테스트를 해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함께한 회원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를 받고 돌아갑니다.



**김민경 회원(경북 상주 사벌초), 김보범 님**

회사를 조퇴한 남자친구와 함께 멀리 상주에서 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꼭 듣고 싶었던 강의였는데 예상대로 미술 연구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배움과 힐링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강의를 다 듣고 나니 교사로서 간혀있던 시각이 살짝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공제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김연희 회원(정읍 북면초), 양세영 회원(전주완산서초)**

그간 알지 못했던 미술의 역할,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관점, 동양 미술을 감상하는 법 등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강의가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실 미술에는 관심이 그다지 없었는데 오늘을 기회로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프로그램 중 심리 테스트가 제일 재밌었는데 의외로 잘 맞아 깜짝 놀랐어요. 하하.





나이스 데이~ 굿샷~  
 여주 소피아그린CC와 함께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  
 The-K소피아그린

크리스마스, 생일, 설날의 공통점은? 바로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이다.  
 그렇다면 공제회원들이 해마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가장 기다리는 날은 언제일까?  
 바로 여주 소피아그린CC에서 개최되는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이 아닐까?  
 눈부시게 아름다운 필드에서 골프를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낸 사흘간의 일정.  
 즐거움이 가득했던 필드로 함께 걸어보자.

글 이경희 사진 안호성







### 골프 마니아들이 손꼽아 기다린 잔칫날

올해도 변함없이 그날이 찾아왔다.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여주 소피아그린CC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오직 공제회원만을 위한 이벤트가 열린 것이다. 소피아그린CC에 들어서자 말 그대로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방에 걸린 환영 플래카드, 로비 한가운데 자리한 근사한 축하 케이크, 한쪽에 마련된 포토 존, 밀려오는 공제회원들에게 기념품을 나눠 주는 공간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그야말로 분주하기 그지없었다. 하루에 126팀, 사흘간 378팀, 총 1512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신청자만 3000명이 넘는, 소피아그린CC의 한 해 행사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이벤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어마어마한 폭염이 연일 계속됐지만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을 방해하기는 역부족이었다. 1부를 마치고 들어오는 회원은 물론 2부를 시작하는 회원들에게서는 더운 날씨로 인한 짜증보다 함께 모여 골프를 치는 즐거움이 훨씬 컸으니 말이다.

클럽하우스 앞의 홍보 부스 역시 오늘의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데 한몫했다. The-K소피아그린 진행본부를 비롯해 The-K호텔엔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서드페이지, The-K예다함상조, The-K손해보험, The-K교직원나라, The-K저축은행 등 다양한 The-K 산하기업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회원들에게 정보와 경품을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었던 것. 다트를 던지는 회원, 추첨을 하는 회원 등 참여하는 모든 회원의 얼굴에는 아이 같은 설렘과 흥분으로 가득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 공제회원만이 갖는 자부심과 긍지

무더위를 걱정했지만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푸른 잔디 덕분에 골프를 즐기는 모든 회원이 마치 명화의 일부인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소피아그린CC의 자랑인 다양한 코스를 돌며 골프에 열중하는 회원 또한 더위보다는 재미와 승부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다.

코스별로 준비된 이벤트 또한 이날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홀컵 2개를 설치해 버디를 기록한 고객에게 기념품을 주는가 하면, 티샷 한 볼이 더케이존(IP 지점) 안에 안착해도 기념품을 제공했다. 파3홀 이벤트에서는 버디 기록 시 팀 전원에 기념품을 증정하니 개인으로도 단체로도 여기저기서 웃음과 환호성이 터졌다.

참가한 많은 팀 중 유독 눈에 띄는 팀이 있었다. 무려 30여 년간 우정을 나눴은 서울 한양공고 교사팀이 그들이다. 꾸준히 참가 신청을 한 끝에 당첨됐다는 팀은 이날 행사를 두고 ‘최고로 만족스럽다’라는 뜻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골프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은퇴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며 “오늘 같은 날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송종규 교사의 말에 일행은 격하게 동의를 표했다. 좋아하는 골프에 맛있는 식사, 양팔 가득 푸짐한 상품을 안은 채 함께한 이들과 살뜰히 우정을 쌓은 것은 물론 덤으로 건강까지 챙긴 이날 행사. 오직 교직원공제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루가 회원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응원하는 선물이었기를 소망해본다.



MINI INTERVIEW



김영욱 팀장 (여주 소피아그린CC 영업전략팀)

‘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은 우리 소피아그린CC의 연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개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루로 시작했다가 참가를 원하는 회원이 많아, 보다 많은 회원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작년부터 사흘로 늘려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피아그린CC는 최상의 코스 품질과 레이아웃을 자랑합니다. 공제회원 여러분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공제회원을 가족으로 모시는 소피아그린CC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인숙 님(서울안복초), 홍성희 님(서울안복초), 이세호 님(서울초당초), 이경희 님(서울안복초)

골프를 친 지 몇 년이 됐지만 오늘 같은 행사가 있다는 것은 올해 처음 알았어요(웃음) 무작정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 오래도록 우정을 나누고 있는 팀원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했어요. 우리 팀은 아침에 홀을 돌아서 생각보다 덥지도 않은 적절한 시간에 골프를 쳤어요. 여기에 실 톱 없이 재미있는 이벤트와 함께 선물도 많이 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일동 웃음) 이 같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교직원공제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하수호 님(전 서경대), 엄영진 님(한국교통대), 송재호 님(경북대), 김광현 님

저희는 학교, 교육부 등지에서 만나 인연을 맺고 오래도록 여행과 운동을 함께하면서 각별한 정을 쌓아왔어요.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에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운동하니까 더욱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경과 날씨, 코스가 기막히게 어우러져 멋진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직원들의 세심한 서비스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덕분에 오늘 캐디가 깜짝 놀랄 정도로 모두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지요. 앞으로 좀 더 자주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 The-K복지누리대어 '든든누리 주택대어' 출시 연이율 2.99%로 3천만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월 The-K복지누리대어 신상품 '든든누리 주택대어'를 출시한다. 든든누리 주택대어는 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이 주택 구입 또는 임차 계약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매매금액 6억원 이하, 임차 시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 이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에 한하며, 주택 면적과 무주택 세대주 여부에는 제한이 없다. 부부 회원의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대어 신청은 9월 제도 시행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계약한 건으로 잔금 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어 이율은 연 2.99%(변동),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1~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 공제회 회원상담창구 내방 또는 우편 신청만 가능하며, 경매·신축·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분양권 매수를 통한 주택 구입 시에는 신청할 수 없다. The-K복지누리대어는 공제회 대어 최초 이용 시 또는 결혼·출산 시 일반대어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소누리 최초대어 ▲행복누리 결혼대어 ▲희망누리 출산대어가 있다. 미소누리 최초대어의 경우 이번에 출시된 든든누리 주택 대어를 포함, 타 대어를 먼저 이용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든든누리 주택대어 제도안내>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한 일반회원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기한	주택 구입·임차계약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상주택	회원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 · 주택 구입: 매매금액 6억원 이하 주택 · 임차 계약: 임차보증금 4억5천만원 이하 주택	
담보방식	회원 급여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서류	소득증빙·주택 계약 관련 서류 등(홈페이지 참조)	
대여한도	금액	최대 3천만원 (주택구입 시 매매금액·임차 시 임차보증금액 한도 내)
	회수	최초 1회(부부 회원의 경우 각각 신청 가능)
	기타	회원 본인의 단독대어 및 보증대어 한도액 내
상환방법 및 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10년(거치기간 없음)	
대여이율	연 2.99%(변동)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문의 회원콜센터 1577-3400

### '복&JOY' 도서 증정 이벤트... 9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와 함께하는 복&JOY' 행사를 통해 회원 4000명에게 도서를 증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두 권으로 tvN <알쓸신잡>에 출연했던 유현준 홍익대 교수의 <어디서 살 것인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열두 발자국>이다. <어디서 살 것인가>는 건축과 공간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며 어떤 공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하고 찾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담았다. <열두 발자국>은 정재승 교수의 강연 중 가장 호응이 컸던 12개의 강연을 선별해 묶은 것으로, 스마트한 선택을 위한 뇌과학의 지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기회 발견을 위한 과학의 통찰력 등을 담았다.

- ▶응모 : 9월 9일까지
- ▶인원 : 각 도서당 2000명
- ▶발표 : 9월 12일 공제회 홈페이지



### 20·30대 공제회원 초청 '조이올파크페스티벌'... 4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30대 회원 대상 '2030 청춘 공감' 회원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9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2018 조이올파크페스티벌'을 관람하는 행사다. 9월 4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하며, 당첨자는 9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 'The-K 행복콘서트' 12월까지 전국 8개 지역서 개최 대전·대구·인천 9월 5일~17일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The-K 행복콘서트'를 10월부터 연말까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강원·제주 등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콘서트는 1부 클래식, 2부 가수 공연으로 진행된다. 클래식 공연에는 소프라노 김수연 등이 출연하고, 가수 공연에는 김범수, 백지영, 거미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응모는 지역별로 세 차례에 나눠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1차(대전·대구·인천)는 9월 5일부터 17일까지다. 2차(제주·부산)는 9월 18일부터, 3차(강원·광주·서울)는 10월 8일부터 응모받는다.

#### ▶'The-K 행복콘서트' 개요

##### <1차 응모> 9월 5일~17일

행사지역	대전	대구	인천
행사일	10월 5일	10월 11일	10월 14일
행사장소	우송예술회관	엑스코오디토리움	송도컨벤시아 4관
출연진	- 소프라노 김수연 - 김범수, 백지영, 홍경민	- 소프라노 김수연 - 김범수, 거미, 홍경민	- 소프라노 김수연 - 김태우, 거미, 홍경민

##### <2차 응모> 9월 18일~10월 3일

행사지역	제주	부산
행사일	10월 24일	11월 7일
행사장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백스코오디토리움
출연진	- 소프라노 김수연 - 김범수, 거미, 홍경민	- 소프라노 김수연 - 김태우, 거미, 홍경민

##### <3차 응모> 10월 8일~21일

행사지역	강원	광주	서울
행사일	11월 24일	11월 27일	12월 1일
행사장소	강릉원주대 해람문화관	김대중컨벤션센터	KBS아레나홀
출연진	- 소프라노 김수연 - 김범수, 에일리, 홍경민	- 소프라노 김수연 - 김범수, 거미, 홍경민	- 소프라노 김수연 - 인순이, 김범수, 백지영, 구창모

※ 응모 일자 및 출연진은 변경 가능(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참나눔봉사단 '라파엘의 집' 찾아

한국교직원공제회 '참나눔봉사단'은 지난 7월 23일 장애인 시설인 경기도 여주 '라파엘의 집'을 방문해 임직원 러브펀드로 조성한 후원금 100만원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나눔봉사단원들은 직업재활센터 등을 방문해 산책 보조, 환경 미화 등 활동을 진행했다.



교직원공제회 러브펀드는 매달 임직원의 급여에서 자투리 금액을 더해 모으고 있으며, 연탄 봉사 활동 후원금 및 무료 급식 봉사 활동 후원금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쓰이고 있다.

###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S2B 업무 협약

한국교직원공제회는 8월 9일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S2B(학교장터) 이용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관내 교직원 대상 S2B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공제회는 S2B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각종 교육·연수 지원, 지원청 주관 회의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제회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에 이어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아홉번째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S2B는 수익계약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 전용 전자 조달 시스템이다.







### The-K Family

#### The-K예다함상조,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The-K예다함상조는 지난 7월 2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상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이 온라인과 전화 설문을 통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브랜드를 각 분야별로 선정한



다. 예다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5회째 선정됐다.

예다함은 올해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한 제11회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KS-PBI)에서도 업계 최초로 장례 서비스 부문 2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데 이어 또 한 번의 수상으로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업계 최고의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또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회계 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자료에서도 상위권에 자리해 예다함의 재정 건전성을 인정 받았다.

#### The-K호텔서울, 레드 어텀 패키지 출시

The-K호텔서울은 가을을 맞아 '레드 어텀 패키지'를 10월 31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 A는 일반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 15만원 ▶패키지 B는 일반실 1박, 더파크 석식 뷔페 2인 18만원 ▶패키지 C는 일반실 1박,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매 13만원이다. 패키지 A, 패키지 B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테이크아웃 커피 두 잔도 제공한다. 패키지 이용 고객은 The-K호텔서울의 레스토랑인 우첼로, 더케이델리, 더파크 이용 시 식·음료류 15% 할인된다.

또한 분수광장에서 라이브 음악과 함께 BBQ 비어 파티를 즐길 수 있는 'BBQ 비어 패키지'도 9월 20일까지 판매한다. 일반실 1박과 BBQ 비어 파티 2인 이용권 구성에 17만원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일요일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 문의 02-571-8100



#### The-K호텔경주, 가을 패키지 풍성

The-K호텔경주는 경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공제회원을 위해 9월 30일까지 '이른가을 썸 패키지'를 판매한다.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구성으로 요일에 따라 9만5000원~13만원이다. 단, 추석 연휴인 9월 22일~25일은 '한가위 패키지'가 판매되며 별도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도 새롭게 내놨다. '에밀레 공연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에밀레 공연 관람권 2매가 포함됐다. 가격은 12만5000원~15만5000원, 9월 29일까지 판매한다.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씨네큐 영화관 관람권 2매 구성의 '시네마 패키지'는 11만7000원~14만7000원으로 올 연말까지 판매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씨네큐 영화관 모두 The-K호텔경주에서 도보 5분 내 거리에 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위치한 The-K호텔경주는 온천 전용 복합 휴양 시설 스파월드로 유명하다.

☎ 문의 054-745-8100

#### The-K손해보험, 초등 사진·웹툰·만화 공모전 개최

The-K손해보험은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함께 제3회 The-K 초등학교 사진, 웹툰·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학교에서 생긴 일'이며 초등학생은 웹툰 또는 만화 부문, 초등학교 재직 중인 교사는 사진 부문에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0월 21일까지이며, 심사 발표는 11월 9일이다. 자세한 대회 요강 및 유의 사항은 홈페이지(www.educar.co.kr) 참조.

한편, The-K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에듀카는 '자녀 할인 특약'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0%로 대폭 높였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자녀 할인 특약은 태아 또는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운전 가능 범위를 부부 또는 1인 한정으로 유지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 함께 나누면 더 좋은 "The-K 매거진을 보내드립니다"

여행, 문화, 제테크, 공제회 소식 등 놓치기 아까운 정보가 가득한 <The-K 매거진> 나눔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소중한 친구, 지인과 함께 보기 위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월 발송해드립니다.

대상	발송기간	신청기한
제한 없음	2018년 11월호~2019년 10월호	2018년 9월 30일
신청방법		
이름(단체의 경우 대표자명)과 휴대폰 번호	수신 희망 주소·우편번호	<The-K 매거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대상과 사연
	희망 부수 (최소 5부부터 발송 가능)	ktcunews@ktcu.or.kr 이메일 발송

\*위 내용을 적어 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 사연 예시 #1

"○○동호회는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교사 모임으로 2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과 매거진을 함께 읽으며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 신청합니다."

#### 응모 사연 예시 #2

교육, 여행, 문화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가득한 <The-K 매거진>,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이 무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담아 비치해두고 싶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 <The-K 매거진> 9월 즉석당첨 이벤트

#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나도 찐다”

이벤트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천고마비의 계절에도 쉬지 않은 식욕을 위해  
고칼로리 맛난 간식을 듬뿍 드려요~

## 天高 馬肥

50개

100개

200개



살찌는 데 치즈님이 최고  
**BHC 반반치킨  
+콜라 1.25L**



역시 '떡튀순'이 진리  
**조스떡볶이  
2인 세트**



회개리카노로 0kcal 도전  
**스타벅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http://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9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10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가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정행위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시 열두 달의 밤을 위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창간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박찬일 셰프와 함께하는 스페셜 아름다운 동행'과 <The-K 매거진>이 함께한 '커피트릭'을요. 놀랍게도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울 정도로요.

뜨거운 날, <The-K 매거진>이 함께한 커피트릭을 위해 그보다 더욱 뜨겁게 호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커피트릭이 처음 방문한 곳은 대구의 새론중학교입니다. 왜 가는 날은 꼭 장날 일까요. 그날은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전국 어디나 39°C가량의 더운 날씨로 힘들지만, 대프리카 앞에선 발도 못 내민다는 사실... 그 사실을 동대구역에 내리자마자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뜨거운 습, 뜨거운 태양을 직접 체험하기 전까진 정말 몰랐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걱정이었죠.

김장환 수석교사께서 직접 내려주신 아이스 드립 커피를 시작으로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김장환 선생님의 아이스 드립 커피는 사막의 오아시스!). 커피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기다리는 시간은 1분이 채 안 되었지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게 어디냐며(저희 눈엔 보이지 않던 바람, 저희 몸은 느끼지 못한 바람) 괜찮다고 웃으며 말씀해주신 손태복 교장 선생님, 최정에 교감 선생님의 미소도 큰 힘이 됐네요. 그렇게 축제처럼 즐겨주신 선생님들의 환영에 '커피트릭 선물'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통영의 동성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어땠고요. 발이 퉁퉁 부어도, 다리가 저려도 커피트릭을 반겨주던 아이들의 미소와 선생님들의 마음은 시원한 음료보다 더 청량했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청한 약제팀뿐 아니라 간호부, 국제의료협력팀, 원무팀, 의공관리팀, 주차관리팀, 진단검사의학팀, 총무팀 등 많은 분께서 함께 즐겨주셨습니다. 지나가는 환자 분께도, 행인 분께도 <The-K 매거진>을 자랑해주신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창간 1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스페셜 아름다운 동행의 박찬일 셰프님, 송정희 중앙대 건강센터 간호사님과 자녀인 민현아 씨. 새로운 만남에도 낯설 하나 없이 충분히 함박웃음 지으며 즐겨주신 시간, 진정으로 즐거웠습니다. 세 분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창간 1주년 기념 이벤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간 여러분께서 차곡차곡 담아둔 애정을 아낌없이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The-K 매거진>과 함께 창간 1주년 이벤트를 즐겨주신 여러분께 진한 애정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트릭이 함께 가진 못했지만, 신청해주신 전국의 모든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요. 그 사랑 다시 채우겠습니다. 2주년을 위한 애정이 충분한 열두 달의 밤을 위해 말입니다.